

표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마19:14)

만남

특집 : 신년 계획

2009 2
통권 42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100-032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다릿길 96번지
Tel (02)2280-0114 www.youngnak.net

이철신 목사
성역 30년 및 설교집 출판 감사예배
2008. 12. 30(화) 선교관



'이철신 목사 성역 30년 및 설교집 출판 감사예배'

지난 2008년 12월 30일(화) 오후 6시 선교관에서 거행된

'이철신 목사님 성역 30년 및 설교집(거룩한 목마름)

출판 감사예배'에서 안순근 장로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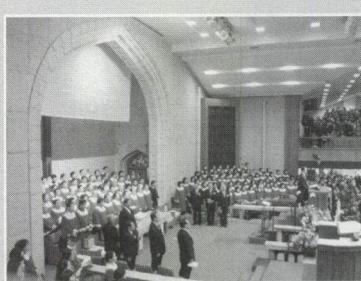
봉정 받고 있는 이철신 담임목사님.(사진 강단 오른쪽)

원내 사진은 예배 후 꽃다발을 받고 인사 하는 담임목사님 내외분.

만남의 초점

만남

2009년 2월 제421호



2009년 신년예배(2부) 퇴임식 광경
– 기사 : 교회소식 63쪽

〈사진 : 박홍기 집사〉

■ 2009년 2월호 통권 421호

■ 발행일 : 2009. 2. 1

■ 발행인 : 이철신

■ 편집인 : 황찬홍

■ 발행처 :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00-032
서울 중구 수표다릿길 96번지
전화 / 2280~0114(대)
e-mail:hongbo@youngnak.net
http://www.youngnak.net

■ 인쇄처 : (주)수정당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1.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2.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3.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4.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1. 교육
2. 선교
3. 성도의 교제
4. 봉사

이달의 말씀 / 예배의 질서와 자유·이철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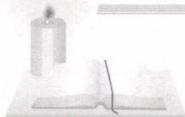
이달의 기도 / 오늘을 위한 기도 4

특집 / 신년 계획

- | | |
|-------------------------------------|----|
| 선교부 - 중장기 선교기본정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 이정호 | 6 |
| 상담부 - 성년 된 상담부가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 김기 | 8 |
| 상례부 - '실천하는 상례부 봉사'를 다짐하며 · 김원호 | 10 |
| 자원봉사부 - 전도의 사역까지 생각하는 자원봉사부 · 박재수 | 12 |
| 감사위원회 - '교회의 화평을 위한 섬김'을 목표로 · 강신만 | 14 |
| 시설관리부 - 새롭게 거듭나는 시설관리부가 되겠습니다 · 김경일 | 16 |

2월 목회력

지상인터뷰 /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 듣는다 · 신영삼	19
목회자 칼럼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채효민	24
군선교 / '비전2020실천운동'의 약진을 위하여 · 이재규	26
기독교의 효(孝) 사상 · 유진삼	28
연재만화(79) / 소보다 못한 성도 · 조위석	31
취재 / 사회봉사부 가정복지봉사팀 · 최주현	33
'교육혁신사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2009년 중등부 사역 · 함승수	36
상담사례 / 30년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 상담부	40
야곱의 우물가 / 출발 전에 기도하고 운전 중에 축복하기 · 설재훈	42
전도자노트 / '예언' 이란 무엇인가? · 정창화	44
비전트립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곤명' · 최종영	46
간증 /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 김경옥	48
제2기 '기독학부모교실'을 마치고 · 한선희	50
목회자팀방 / 유창원 목사님댁을 찾아서 · 유승효	52
김성수 목사님댁을 찾아서 · 유승효	54
이철신 담임목사님 설교집 '거룩한 목마름' 호평	56
구역모임교재	58
교회소식	60



예배의 질서와 자유



이 철 신 담임목사

질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발전시켜온 교회력이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부활절이고, 성탄절과 성령강림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기부터 시작됩니다.

구주강림절기,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예배 색깔은 보라색이고 왕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의 예배 색깔은 흰색이고 기쁨과 빛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질서와 자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질서와 형식을 소홀히 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예배는 열정이 있지만, 기준과 방향이 없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예배는 안정되어 있지만, 딱딱하고 냉랭한 예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어야 합니다. 예배의 정해진 질서와 기준안에서 유연하게 또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므로, 안정되고도 열정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성탄절과 주현
절(주님의 나타나심) 이후 사순절 전까
지는 통상 교회력 기간입니다. 예배
색깔은 녹색이고 영적 성장과 희망
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교회력은 부활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
까지 40일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이 절기의 예배 색깔은 보라색이고, 영적 씻음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종려주일은 빨간색이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고난주간 중 성금요일과 토요일은 검은색으로,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슬픔을 표시합니다. 부활절후 주님의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축하합니다. 예배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성령강림절은 성령의 강림을 축하하고, 예배색
깔은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는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은 성탄절기까지 두 번째 통상 교회력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예배색깔은 녹색입니다. 영적성장과 희망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른 예배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목회자들이 교회력과 예배에 관한 책들을 읽고, 다양한 전통과 사례들을 조사하고, 신학교의 예배학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한 다음, 교회력에 따른 예배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제작하고, 우리 교단에서 채택한 목사복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목사복과 가운의 영대와 강단의 영대를 교회력의 예배 색깔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의 질서를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교회력 절기의 리듬을 따라가므로,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질서를 잡고, 이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므로 균형 잡힌 신앙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력의 절기와 예배 색깔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질서 속에 자유가 있는, 활기 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오늘을 위한 기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주님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홀히 여긴 채
무심코 시간을 흘려보내며
낭비한 것을 고백합니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였고,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말씀하신 주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이옵고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하는 저희들이온데,
우리는 인생의 주인인양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내게 주신 삶을 허비하였나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오니
허탄한 것에 욕심내며 자랑치 말게 하시고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현재가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소서

물질이 있을 때 베풀게 하시고
건강할 때 더욱 섬기게 하시며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
오늘 사랑과 격려의 말을 건네게 하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만끽하게 하소서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중장기 선교기본정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이정호 장로
강서·구로·양천교구,
선교부장

우리 영락교회는 1945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고)한경직 목사님과 27명의 성도들에 의해 창립된 이래 지난 63년간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기여케 하여주신 교회가 되어왔음에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목사님의 복음전파의 열정을 이어받아, 오늘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로 이끌어주신 믿음의 선배와 교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주신 남선교회원과, 오늘의 선교한국을 이루는데 크게 역할하신 여전도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선교부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사역을 능동적, 집중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선교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선교전략과 선교지도방침을 수립하여 열심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는 전 세계가 경제금융대란으로 어려운 시련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현금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은 보다 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2009년도에는 장기목표를 설정, 선교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2의 선교사 파송국이지만, 앞으로 10년 후(2020년), 20년 후(2030년) 선교대상지인 우리나라 농어촌의 변모와 산업의 변천, 또 해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발전상, 또한 이슬람인구의 증가와 포교방법, 가톨릭과 불교 등 타종교의 선교정책의 변화 등을 조사연구하여 예측가능한 범주에서 심층적 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총회적 차원에서 장 단기적 선교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형교회의 선교방향에 차별화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선교부에 7개의 운영 팀, 해



▲ 2009년 선교부 교역자와 임원 일동

외선교부에 4개 팀, 문화선교부에 3개 팀, 12개 이상의 활동소그룹이 있고, 북한선교부에는 3 개 분과, 10개 팀이 있어서 각 팀마다 헌신적인 성도들의 땀과 노력으로 유기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재정의 20%가까운 선교예산과 이에 버금가는 자치단체(남녀선교회), 소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형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대책, 예컨대 CMS(후원금 모금관리서비스)회원을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선교지원비를 차등지급하는 방법 등의 동기부여 정책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소형교회는 대형교회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내의 학원이나 복지기관, 노인정 등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전도방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좋겠습니다. 소형교회가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직접지원방식의 선교방안을 실천한다면, 대형교회는 정책적인 연구와, 인력과 시스템에 투자해주는 방안으로 차별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적인 선교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에 언급한 장기목표설정과 선교방향의 차별화를 위하여 선교부와 남녀선교회, 소단체, 그리고 연관부서가 협력하여 실천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정책이 다방면으로 많은 기관에 선교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선교대상과 시행방안을 연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선교 마인드의 정립은 물론, 국제어를 구사하는 실력을 갖추어, 보다 폭 넓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금년 한해, 급변하는 선교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역동적인 선교활동이 이루어져 우리 영락교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성년 된 상담부가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 발전하는 상담부로

우리 영락교회의 상담부가 개설된 지 어느덧 24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상담부는 교회 제직부서중의 하나로서 상담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역자와 충성으로 헌신 봉사한 임원들과 상담부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실행위원회들과, 여러 분야의 전문상담원들과, 상담부 전 현직 가족들이 함께 봉사하면서 교민들의 희로애락을 이루만지고 보살피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상담부는 전화상담, 목회상담, 전문상담(법률, 정신건강, 세무, 여교역자, 교통사고, 경제금융), 정보 상담(결혼, 직업소개) 기독교정 목회상담(결혼준비, 부부성장), 상담원 연수교육, 평신도 상담교육, 상담원 양성실습교육 등 많은 분야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사이버상담으로 크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상담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담자 상담위주에서 온라인 상담으로 크게 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공개, 비공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02-2275-1004, 2275-1007로, 직업 또는 결혼상담은 02-2280-

김 기 장로
서초교구, 상담부 부장

0174, 2280-0175 번을 누르면 누구나 자유롭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담 할 수 있으며, 신앙 상담은 물론 정신장애, 법률, 세무, 행정, 노동, 청소년문제 등을 상담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준의 상담기법과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해 매월 1회씩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결혼준비) 교실, 요셉과 마리아(부부성장)교실, 아브라함(아버지)교실, 하나님의(어머니)교실, 리브가(아내)교실, 갈렙(노년)교실 등의 가정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설25주년을 맞이하는 상담부는 이제 성년이 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물론 세상 적으로도 다가갈 것입니다. 지난 24년여의 상담사역을 냉철히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담사역은 물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각종프로그램을 신·개설하여 대학수준을 능가한 교육으로 상담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분야별 상담 운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 신앙, 가족, 부부, 이성, 사회생활 정보제공

(1) 상담시간 : 매일 09시 30분 ~ 21시

(2) 영락의 전화 : 02-2275-1004, 2280-0172(안내)

2) 목회상담 : 신앙, 신앙정보, 가정상담

상담분야	요일	시간	상담 내용	전화상담
면접·전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평일오후1시~5시 오전9시~5시 오전10시~12시 전화예약 후 상담	신앙과 삶의 문제 02-2280-0171	02-2280-0209 02-2280-0336
사이버상담	http://www.youngnak.net/상담실			신앙상담(공개, 비공개) 가정상담(공개, 비공개) 신앙정보 상담(성경, 교리)

3) 정보상담

상담분야	시간	상담 내용	상담전화
결혼소개 상담	월요일 휴무	초혼	02-2280-0175
직업소개 상담	화~주일 10시~17시 토요일 10시~13시	재혼	02-2280-0174
사이버 상담	http://www.youngnak.net/상담실		결혼상담, 직업상담 (구인공개, 구직비공개)

4) 전문상담 : 주일 10시 30분 ~ 15시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상담분야	상담 내용	요일
교통사고 상담	교통사고 및 처리에 관한 상담	주일 10시30~1시
금융경제 상담	재산 운영 및 경제활동에 관한 상담	주일 오후3시~5시
법무행정 상담	법무 및 행정에 관한 상담	주일 10시30~1시
세무 상담	세무 상식에 관한 상담	주일 1시30~3시
정신건강 상담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http://www.youngnak.net/상담실	주일 1시30~3시

‡ 상담사역(상담원 봉사)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은 상담부(전화 02-2280-0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상례부 봉사’를 다짐하며



김 원 호 장로
성동·광진교구, 상례부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살전 4:13)

1. 상례부 봉사자의 실천 방향

장례현장에서 실행–봉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야한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장례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 가짐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 임종예식

사람의 호흡이 멈추고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임종이다. 슬픔 당한 가족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한다.

임종기도 및 찬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구역장)하며, 교구목사 인도로 임종예배 준비를 돋는다.

□ 입관예식

입관은 집례 목사와 유족이 참관하여야 한다. 입관은 교구 목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시간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상례부 간사와 사전에 협의), 입관이 끝나면 유족이 고인의 영정 앞쪽에 자리하고, 뒤쪽에 친척과 상례부 실행–봉사위원들이 차례로 앉아 정리한다.

예배 중에는 조문객들에게 예배 소요시간을 정중하게 안내 할 수 있도록 안내인을 배치하여 조문객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믿음의 장례예식이 믿지 않는 이들의 장례예식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례예식

장례예배는 조가팀의 은혜로운 찬양 속에 염숙하고 정중하게 치러야 한다.

장례예배 후 집례목사는 장지에 함께 갈 수 없는 조객들과 유족들이 인사를 하게한 후 차에 승차하게 하고, 집례자가 동승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실행–봉사위원들은 주위에서 개인의 담소나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 등에 주의를 살피며,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찬송으로 위로 한다.



□ 하관예식

영구 차량이 동산에 도착하여 운구할 때도 실행–봉사위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찬송으로 준비하고, 집례자의 축도로 하관예배를 마친다. 실행–봉사위원들은 동산의 식당으로 유가족과 조문객들을 안내하여 먼저 자리에 앉도록 하고, 유족을 대신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준비한 음식이 고루 전달되도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한다.

2. 2009년 상례부의 다짐

상례부는 연간 주야로 장례를 치러야하는 업무 특성을 띠고 있으며, 실행–봉사자 및 임원 관계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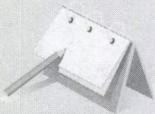
그간 장례예식을 감당해왔지만, 하나님이 저희 상례부에게 주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라 신자가 이것에 유의하라”(전 7:2) 하신 말씀에 사명을 다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 상례부에게 주님은 2009년 ‘주님

을 섬김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섬기자’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절차적인 장례에서 벗어나 주님나라로 가는 길을 돋는 봉사자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2월 목회력



1일(주일)	주일찬양예배 성찬 장년부성경공부 겨울특강(1, 8, 15, 22)
4일(수)	신임구역장 세미나
8일(주일)	제직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15일(주일)	새가족환영회
20일(금)	구역장권찰 수련회
22일(주일)	사회봉사주일 권사회 헌신예배
23일(월)	봄맞이특별새벽기도회(23~28)
24일(화)	당회
25일(수)	삼일절 기념예배(수요1부)
27일(금)	심방준비회
28일(토)	결혼예비교육

■ 자원봉사부

전도의 사역까지를 생각하는 자원봉사부가 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자원봉사부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각 분야의 봉사인력의 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각 제직부서와 교회 전체의 기능별, 직능별, 필요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원봉사학교'라는 자체 교육기관을 두고, 교육을 수료한 자원자로 하여금 자기의 소질과 능력별로 봉사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성장을 물론,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본이 되어 전도로 이어지게 하여, 그리스도인을 양성해 가며, 교인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신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날로 극심해지는 교통체증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간과 사회 전반의 자원낭비를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소양교육, 차량 운행 중 지켜야 할 기독교적 예절 등을 안내 및 홍보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여 교회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전도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박재수 장로
장서·구로·양천교구, 자원봉사부장

이를 위해 봉사에 앞장서는 자원봉사부의 '봉사팀 구성과 운영' 및 '2009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팀 구성 및 운영]

- 가) 교통 지원팀 : 지상조, 지하(주차장)조
- 나) 환경 정리팀 : 전산팀, 환경정리팀
(금요팀, 베다니팀), 에너지관리팀,
엘리베이터안내팀, 한경직기념관 안내팀,
도서관지원팀.
- 다) 2009년도에는 '휴게공간 관리지원팀'을
새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계획]

■ 추진 방향 :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고도로 산업화되어가고 다원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미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양

식도 너무 다양해져서 모든 봉사자를 한 범주에 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해졌습니다.

변화하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자원봉사로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부가 영락교회에 소속한 교우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만이 아니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복음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추진 계획 :

1) 자원봉사학교 교육

2009년도 자원봉사학교를 9월중에 개강하여 봉사에 관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료케 하여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팀별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봉사등록자는 1월 현재 381명입니다.(2008년 320명 등록)

2) 자원봉사 캠페인

준법정신의 고취 및 캠페인을 연 2회(봄, 가을) 실시하여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교통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먼저 다수의 편의와 다수의 유익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법의 근본정신을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봉사자간의 상호불신을 해소함으

로, 결속력으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봉사부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자원봉사자 봉사수칙(메뉴얼)제작

봉사자간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민첩성과 유연성을 고취하고, 자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인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될 봉사수칙(메뉴얼)을 통하여 ‘변화에 대처해가는 봉사팀’들이 되도록 면모를 일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자원봉사자 재교육

전체 봉사자는 각분기별 2회(년 4회)이상의 무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영성을 새롭게 하고, 재충전하여 봉사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남

자원봉사자가 더욱 필요 합니다.

우리교회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자원봉사로 대를 이어가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교회의 화평을 위한 섬김’ 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강 신 만 장로
강서·구로·양천교구, 감사위원장

사회적 환경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저에게 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게 됨에 저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제직부서장의 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감사위원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한 섬김’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감사위원들의 모든 감사활동이 교회의 재정이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듯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 지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에 물고를 터서 잘 흐르게 하고, 물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잘 흐르지 않는 곳에 물고를 터 잘 흐르게 하고, 물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흐를 때 방향을 잡아주어 제대로 흐르게 하고 물이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 자세 재확립

감사위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전문적인 달란트를 십분 발휘하여 다섯 달란트를 가진 자가 주인에게서 칭찬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정기 감사 전 경건회 시간에 목회자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피감교인들을 돋고 문제

를 해결하여 주는 도움의 역할을 하도록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활동

1. 일반 경상회계감사는 —

우리 교회의 일반 경상회계집행은 그 과정이 투명하고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에 자금지원을 하여 필요를 충당하는 현실이므로 감사위원들의 감사의 표시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집행상 행정적인 미숙이나 실수를 찾아 이를 계도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2. 특별예산은 —

교회 및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와 일과성 행사를 포함하는 특별예산은 과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전문감사위원의 특별한 주의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사시행은 공사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 발견은 되나 사후 약방격이라 그 실효성이 결여됩니다.

공사진행에 대한 확실한 지침서가 선행되어야 하며 계획단계, 공사진행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이 제도적으로 정착, 집행되어 동일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4. 재정집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감사활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고의적인 금전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전문감사위원을 투입,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며 그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이에 상응하는 책벌의 조치가 뒤따르게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노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검토, 대안을 제시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정집행 담당자, 부서 등 유관기관 모두의 사랑과 협조로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감사활동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날

■ 시설관리부

새롭게 거듭나는 시설관리부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눅 14:28)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어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신임장로 첫 해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 중요한 부서를 맡게 되니 부담감이 앞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열심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시설관리부의 주요 발자취를 잠시 돌아봅니다.

- 1999년, 관리부와 서무부를 통합하여 ‘시설관리위원회’로 새로 조직되어 초대 부서장에 김덕원 장로께서 담당하였습니다.

- 1997년 11월, 50주년 기념관이 준공되고 입주한지 1년만의 일이고, IMF위기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도원개축공사, 본당보수공사, 공조기기 교체공사, 봉사관리모델링, 한경직목사기념관개수공사 등이 계획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초 구상과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계획과 추진의 전반을 사무처에서 관장하였습니다.



김 경 일 장로
일산·파주교구, 시설관리부 부장

- 2001년, 박민성 장로께서 시설관리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2001년 12월 1일부터 시설관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사무처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행정장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도원공사, 본당 보수공사, 공조기기 교체공사에 다소 문제가 발생한 때이기도 합니다.

- 2003년, 서무부가 다시 조직되면서 ‘시설관리부’로 부서명이 변경되고, 사무처가 ‘행정처’로 바뀌었습니다.

서무부를 독고영훈 장로께서 맡으면서 행정장정 중 미비한 부분과 제직부서의 활동내규를 수정·보완 하였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시설관리부는 정상봉 장로께서 맡으면서 엘리판공사, 기념관1층 여자화장실 개수공사, 새가족부 이전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관 주변 바닥개수공사, 50주년기념관 엘리베이터 증설 등의 계획을 세우고,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매달 실행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개최하면서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 2005년 3월 20일, 교육부·음악부와 함께 ‘예배환경개선세미나’를 통하여 교회시설의 개선사항을 수렴, 우리 교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5년은 교회 사정에 따라 1년을 부서장(장로)없이 공덕호 안수집사(차장)께서 시설관리부 업무를 맡았으며, 2006년은 최군수 장로께서 부서장을 맡으면서 5월 26일 ‘영락교회 비전2006’이라는 내용으로 당회원들에게 영락교회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교회 환경개선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 박순태 장로께서 시설관리부를 맡으면서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지하2층 예배실 리모델링, 북센터 설치, 1층 및 2층 공간에 휴게 공간 확보, 베다니광장에 야외무대 설치 등의 실시설계 및 중장기 계획의 기본설계를 추진하였다 차, 5월에 ‘교육혁신위원회’(지금의 65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교육환경시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시설관리부 어느 누구의 참여도 없이 교육시설에 관한 계획 및 시행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시설에 우선을 두고 그 외의 일체의 시설 및 계획은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8년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와 ‘설악산수양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사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시설관리부가 되겠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부가 태동된지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시설관리부가 되기 위하여 행정장정 및 활동내규를 기초로 2004년도에 확정한 시설관리부 운영규정(안)의 내용들을 토대로 실천사항을 요약 정리해 봅니다.

1)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모습

우선 교회 구석구석이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보수유지관리(환경개선)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강화하여 조사해야 할 항목, 장소와 시기 등 업무의 수행과정 및 팀원들의 역할과 협조가 필요한 각 부서 및 자치단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장기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현재 ‘교육환경시설위원회’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념관 리모델링공사에 기술적인 면에서 시설관리부의 전문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한편 향후 교회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시설)들이 있습니다.

- 1950년 건축되고 1978년 증축된 지금의 본당은 이대로 계속 사용할 것인가?

- 1957년에 준공된 교육관은?

- 1973년 및 1975년 건립된 봉사관 및 한경직목사기념관의 20년 후는?

- 주변건물의 활용계획을 검토하여야 할까?
- 방배동 부지는?
- 포천 기도원 부지는 언제 어떤 시설로?
- 남한산성 영락여자신학교는?
- 영락동산의 30년 후는?
-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시설 계획은?
- 학교법인 등의 모든 시설들의 신축은 물론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의 규모, 시기, 여론 수렴 등이 고려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문인력(기술자)의 발굴과 봉사에 동참
교회 내 전문기술자들을 찾아내 받은 바 달란트를 활용하여 교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봉사를 통한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내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통한 자문 및 적극 참여를 권장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4)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투명한 공사 관리
전문기술 인력들을 활용하여 전문지식의 결여로 발생되는 모든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잡음이 없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설계, 입찰과정에서의 업무들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수행 및 감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맺는 말

2008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행정적으로는 ‘운영(업무 수행)의 흐름을 이어가는 제직부서’가 되어 목소리가 크던 작던 어느부장, 차장이 맡더라도 한결같은 제직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금년 우리교회 표어대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든 제직부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비한 행정장정은 기획위원회 주관 하에 관련 부서의 활동내규(운영규정)들을 보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두 명의 차장을 두어 무거운 짐을 나눠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들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가운데 ‘팔려가는 당나귀’ 이야기에서 동네 아주머니들, 노인들 또 젊은이들 모두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는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듣는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는 경청하는 자세는 좋지만 결단하고 실천하는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모아져 좋은 결과를 향해 일할 수 있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날**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남’ 지는 새해를 맞아, 긴 세월을 오직 ‘믿음과 봉사’로서 교회를 섬기시다 지난 1월 1일 은퇴하시게 된 일곱 분 장로님들 중, 개인사정으로 사양해 오신 윤학원 장로님과 한정현 장로님 외 다섯 분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번거로운 죄담이나 인터뷰방법을 피하고 서면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평소 생각해 오신 것들을 자유롭게 요약하여 쓰시도록 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정성껏 답을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편집자 주]

1. 장로님께서는 2009년 1월 1일 주님의 몸 된 교회, 영락교회의 장로 직분을 정년을 맞아 퇴임하게 되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또 그동안 어떤 직분으로 몇 년 동안 봉사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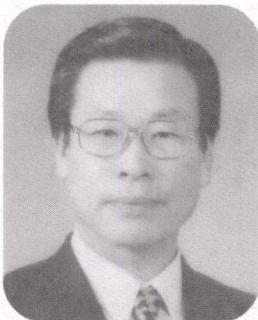
□ 안봉순 장로 :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군대생활 22년 9개월 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가 1976년 초 영락교회에 등록하여 성서학원(2년제), 교사양성부, 상담교육, 벤엘성서 등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1979년부터 고등부 교사로 시작하여 청년부 등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다 1994년 장로로 장립하였습니다. 그 후 교통안내부장, 사회봉사부장, 갈릴리찬양대장, 장년부장, 중등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박광준 장로 : 1957년 단신으로 상경하여 몇 교회를 다녀 보았으나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나 좋았고 모든 교우들의 신앙적 삶을 보며 1970년부터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구역장(1976~1998년), 안수집사(1986년 안수), 장로(1995년 장립), 대학부장, 사회봉사부장, 예산위원장, 시온찬양대장(2회)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역임했습니다.



□ 김성배 장로 : 1956년 부산에서 김상호 목사님의 안내로 1958년부터 서울 영락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육부, 교사양성부(교사30년), 베들레헴찬양대, 베다니찬양대, 홍보출판부장, 서무부장, 식당운영위원장, 당회인사위원장, 행정분과위원장, 당회운영위원회, 설악산수양관 운영이사, 영락공원묘원이사, 제1남선 교회장, 장로친목회장, 영락35년사 출판위원, 영락50년사 출판위원장 등으로 봉사했습니다.

□ 류재욱 장로 :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교사로 40년을 근속하게 역사하시고, 상례부장, 목양부장, 자원봉사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박동술 장로 : 1973년 아내 김문자 권사의 인도로 등록하게 되었고,



’82년 우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87년에 서리집사로 임명받아 재정부와 선교부,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실행위원으로 봉사하였고, ’97년부터 안수집사로서 영락사회복지재단감사, 선교부 국내선교차장, 제직회서기 등으로 약 8년 여간 섬기었으며, 2006년 12월 장로로 장립되어 2007년부터 상례부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전화상담원교육을 수료한 후 상담봉사를 시작한 것이 인연이 되어 상담부 세무전문 상담원으로도 약 8년간 활동하였고, 선교제자 훈련학교 리더자 과정, 기도학교 제2기 과정, 북한선교학교 제7기 과정 등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 우리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보람이 있었다고 기억되시는 일이나, 감사를 표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혹시 후회되거나 섭섭하셨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 양봉순 : 성경에 기록하기를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듯이 교통부장으로 봉사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안내할 때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사랑의 공동체로 가장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 박광준 : 집사와 구역장으로 임명되어 당시 영적, 물질적으로 복 주시고 그때 기쁘고 슬펐던 모든 일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 김성배 : 주일학교 교사와 교사양성부 부감으로 봉사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학교와 교회에서 담임으로 가르친 학생이 교회찬양대로, 지휘자로, 교회권사로, 안수집사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감사를 표하고 싶은 일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신상 문제로 올린 편지를 보시고 직접 답장을 해주신 한경직 목사님의 회신을 읽으며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감동했습니다.

□ 류재욱 : 20여 년 전 찬송가공부반 초창기 부장 시절, 당시 우리교회에서는 복음성가를 부르지 않을 때 성령충만한 집사 권사님들이 악기와 수금을 하며 온 회중이 성령충만하여 찬송과 복음성가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회원수가 30명에서 60명, 120명, 200명으로… 당시 성가학습부가 오늘의 한마음찬양반이 되었습니다.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박동술 : 36년간 쌓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8년 여 간 세무상담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해 안타까워하시던 우리 영락교우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렸던 일과, 선교부 국내선교차장으로서 2년간 섬기면서 미자립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몸이 아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로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하신 바 소임으로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 간의 ‘상호 협력’을 총회 헌법에 명시하여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이 혹 잘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셨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치유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안봉순 : 한때 당회의 반목으로 전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고 인내함이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이 곧 응답이었습니다.

□ 박광준 :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성령이 항상 임재하시어,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 육의 사람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 김성배 :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여기는 독선이 상호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생각해보는 여유와 마음자세로 대화한다면, 모든 일이 원만



게 해결될 것입니다.

□ 류재욱 :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술 :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두 갈래로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지난 83년 한국개신교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와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화해와 화합, 일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별히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지양하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써 오직 하나가 되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영락에 가장 필요한 치유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4. 공식적인 모든 교회 직분을 내려놓으시면서 제직 분들, 특히 시무장로님 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십시오.

□ 안봉순 :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습니다.

□ 박광준 :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장로가 되어,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 김성배 : 60여 년 전 공산당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피난오신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를 생각하시어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류재욱 : 교통안내부를 퇴임하면서—, 주일 교회 주차난 해결 방안의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부터 앞장서서 집사, 교사, 찬양대 등 제직들은 1부예배 시작 전부터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게 하고, 교회 주차장에는 평신도와 새가족, 청년층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술 : 당회원 한 분 한 분이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히 교회치리에 임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당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를 섬기고 공의를 행하는, 섬기는 자의 본분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직한 교회,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하늘나라의 재원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당회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디 현대화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5.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안봉순 :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매일 느끼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렵니다.

□ 박광준 : ① 부서 책임은 2개부서 이상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토의 심의는 당회 분과에서 활발하게 하시고 당회에서 의결하면 ③ 선임장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김성배 :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과 원로·은퇴장로님들, 그리고 동료 장로님들을 비롯한 제직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50여 년을 몸담아 봉사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사랑하는 영락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 류재욱 : 자원봉사부를 퇴임하면서-, 평일 본 교회의 부족한 손길은 본 교회의 제직 자원봉사자를 세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동술 : 부족한 몸을 영락교회의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상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상례부 가족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와 교역자, 제직, 성도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남**

* 질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 신영삼 (편집장)】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채효민 목사

고양·파주교구,
IT미디어부 담당

2009년이라는 새 날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소망과 기대보다는 막연한 두려움만 가득한 채 새해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제와 다른 내일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시 한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종환 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봄에 필 화려한 꽃들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라는 꽃이 피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 수많은 흔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꽂꽃이 견디어 내기보다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꽃입니다. 때론 그런 바람이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모진 바람 속에서 줄기를 세우고 핀 꽃들을 볼 때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 수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

다. 술하게 눈물로 젖은 밤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게 젖으며 꽃을 피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결국 흔들리며 피는 꽃은, 그리고 젖으며 피는 꽃은 곧 우리네 삶의 자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고 부럽기까지 한 삶이라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라면 단지 어떤 분은 그 흔들림과 눈물에 젖은 시간들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운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바람과 눈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꽃은 술하게 피고 지고 다시 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젖어들게 하는 눈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눈물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피운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도 아름답지만 자연에서 모진 바람과 비를 이겨 가며 피운 들꽃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홀로 피어 있는 작은 들꽃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이는 단지 색이, 모양이 더 예뻐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감당한 모든 시간의 아픔과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9년 새해를 시작하며, 소망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거나 큰 벽에 부딪쳐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해쳐 나가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걱정부터 앞서지는 않습니까?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저런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아름다운 꽃이 자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봉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봉을 잘 살아 내야 합니다. 그 삶의 봉은 곧 우리의 인생 속에서 피워내야 할 꽃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각각의 꽃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꽃씨를 뿐이고, 그 꽃씨가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람과 비를 견뎌내는 것, 흔들리면서도 젖어가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 가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만남**

‘비전2020실천운동’의 약진을 위하여



이재규 은퇴장로

한국기독교군선교
연합회 부이사장

금년은 우리나라 군에 군종목사 제도가 도입된 지 58년을 맞으며 ‘비전2020실천운동’을 결의,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포한지는 11년째로 실천운동 2단계로 도약을 시도하는 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군선교의 선구자로서, 일찍이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군선교 현장을 ‘황금여장’이라고 하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건지려면 나라의 공인 엘리트 청년들이 집결하여있는 군선교에 힘을 기우려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갈파하시면서 군선교에 앞장서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전2020실천운동’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선교로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전2020실천운동’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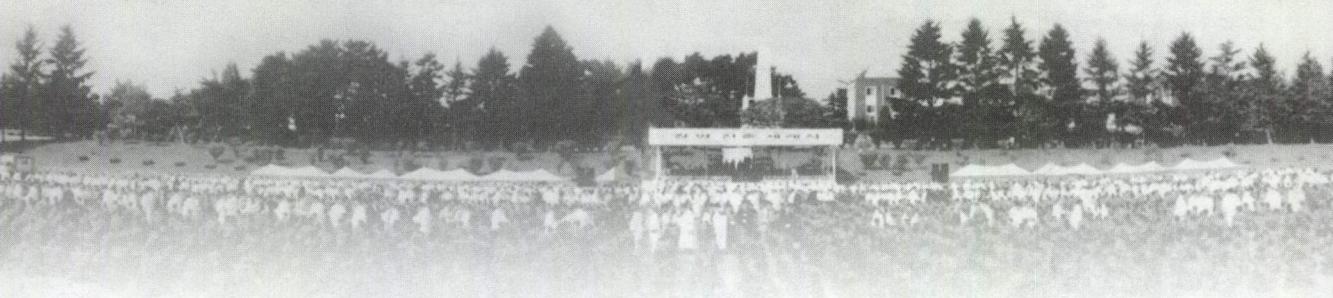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를 비롯한 44개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

육을 통해 주후 2020년에는 전국민의 75%인 3,700만 명 성도의 나라를 만들어 군대, 민족, 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육성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애국애족 운동이며, 군으로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명랑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운동이고, 교회로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운동입니다.

군선교의 결실

우리 민족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6·25전쟁 중인 1951년 기독교 신자율이 약6% 이던 때 군종목사제도가 시작되어,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현재 군선교사역 현장은 1천여 군인교회가 세워졌고(그중 170여 군인교회를 우리영락교회가 지원) 260여명의 군종목사, 300여명의 군선교 일반교역자, 6만 여명의 기독군인회(MCF) 회원 등 전체 장병의 54%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0년 육군훈련소에서 점화된 진중세례식을 전군으로 확산시키면서 지난 17년 동안 약 290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전도 받아 세례신자가 되었는데, 지난 1997년 4월 19일에는 육군훈련소에서 한번에 7,2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역사도 이루어 졌습니다. 군복음화를 위한 단일 창구로는 군종목사를 파송한 11개 교단과, 초교파 범 교회적으로 1972년 설립 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국내지회 16개, 국외지회 6개)가 구심점이 되어 전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전2020 공동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아멘〉

이 기도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를 통해 건강한 젊은이, 건강한 군대, 건강한 국가를 만들며 한국교회 전체부흥과 교회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교단 교세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매년 3~5만 명의 신자 성장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교세감축 추세의 위기감을 깨고 복음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장300만성도운동'이라는 표제 아

래, 향후 2년간에 30만 불신자를 전도하여 현재 268만여 성도의 교세를 3백만 성도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현재 전국 지역본부와 지노회 조직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군의 비전2020실천운동과 바른 연대를 도모한다면 목표 달성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금 군선교 황금어장에는 우리와 더불어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여러 종파들의 포교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종교편향활동 중지라는 큰 장애요소까지 등장하여 예전과 달리 우리의 군선교 활동에 매우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타종파들에 의하여 우리의 황금어장이 많이 잠식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군선교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락교회는 육군훈련소, 사단급 및 대대급 단위의 세례식주관은 물론 군부대 위문활동, 특수목적 및 정책적 사업지원 등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지원 면에서는 전체군교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여 군인교회를 우리교회가 건립 지원하여 군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을 때, 아니,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전에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물질을 드려 비전 2020실천운동의 약진을 위해 천사(1,004) 군인교회에 세례운동과 양육의 두 날개를 달아 비상(飛上)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갑시다. 만남

기독교의 효(孝) 사상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윤리·도덕은 효(孝)라 할 수 있고 효(HYO: Harmony Young Old)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가정은 인간의 보금자리요, 행복의 근원지가 될 뿐만 아니라, 효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윤리는 일반적으로 동·서양의 윤리로 구분하고 있다. ‘칸트’ 사상에서는 “서양의 윤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동양에서의 윤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효의 근거를 두었다”고 하였다.

시대 따라 바뀌어가는 효의 개념

우리 민족은 옛적부터 윤리를 효에 바탕을 두고 전래되어 왔으며, 대가족을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한국이 인류역사에 기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과 노부모를 모시며 대가족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온 세계가 본받아야 할 가족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제도는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대가족시대의 ‘효’의 개념이 핵가족시대



유 진 삼 장로
고양·파주교구, 전 신흥대학교 교수

의 ‘효’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문제로 가정문제가 발생하고 더나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오히려 노부모들이 따로 살기를 원하고 독립적인 삶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자·손녀들과 따로 살기를 진실로 원하겠는가? 언제나 자녀들의 곁에 있기를 바라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노부모들의 심정이다. 그런데도 ‘따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효사상이 소멸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경 곳곳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효

성경에서는 효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십계명에서 사람에게 제시한 계명 중 첫째가 “네 부

모를 공경하라”고 기록 되어있다. 기독교의 효사상은 신·구약을 통해서 수 없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의 성구만 제시하고자 한다.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출 21:15)

*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잠 20:20)

* “아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

*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마 15:4)

*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



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딤전 5:4)

이와 같이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효와는 거리가 먼 종교’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명절이 돌아오면 제사문제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는 것’이 곧 ‘효도’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효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기독교인들은 효자·효녀가 되어 기독교는 효를 잘 실천하는 종교라는 인식으로 전환 시켜야한다.

어느 종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사를 잘 지내야 효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효가 아닌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불효자식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죄의식을 느끼게 마련이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던 자식보다 부모 속 썩이고 말썽 부리던 자식 일수록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남은 회한(悔恨)은 더 크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자식들의 깨달음은 대부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늘 우리 곁에 계신 것도 아니다. 살아생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큰 비석을 세우고 제사상을 잘 차려놓은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 92세의 노부(老父)를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이 이글을 쓰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셔야지’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필자도 이제 나이 70이다. 교수직을 정년퇴임은 했지만 지금도 1주일에 한두 번 출강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

‘때 늦은 후회’는 그저 ‘불효’ 일뿐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차 조심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활동할 때가 아닌데…”하고 말씀 하실 때, 웬지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돈다. 때로는 집에 돌아와 에베소서 6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사시면 몇 해나 사시겠는가?’ 생각하면서 효도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 토록 소중한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다. 살아생전에 주안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 세상에 뿐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는가?

언젠가 부모님 무덤 앞에 서게 될 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목이 터져라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으신 그날이 올 때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는 이미 늦었다. 이때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살아계실 때 주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만남

79

연재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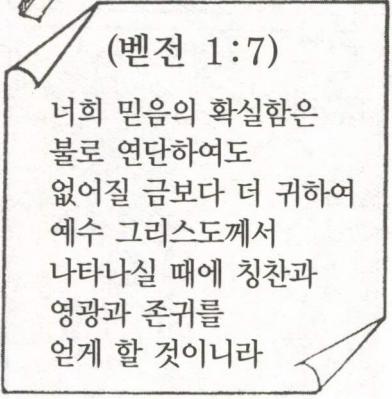
소보다못한 성도



글·그림 조 위석 집사
(홍보출판부 전문위원)
(TV-CF 감독)



뒷면에 계속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눔을 드리는 분들

가정복지봉사팀은 사회봉사부 소속으로 독거노인, 장기환자 및 사회복지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봉사를 하고 있다. 만남지는 지난 16일 사회봉사부 사무실에서 가정복지봉사원으로 봉사하고 계신 세 분의 권사님을 만나 보았다. 권사님들의 봉사 내용을 정리하여 실으며, 가정복지봉사팀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복지봉사팀에 관심과 참여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옥인동에 사시는 할머니

오월 어느 화창한 봄날 가정복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A 권사님은 이날도 발걸음을 가볍게 옥인동에 훌로 사시는 91세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문은 왜 활짝 열어 놓으셨나요?”

“음~~ 너무 외로워서 문 열어 놓으면 파리라도 들어와 친구하자 하려고 하는데 파리두 내가 싫은가봐. 한 마리두 들어오질 않는구만. 그런데, 이게 누구냐. 천사야 천사가 왔어.”

하반신 장애로 일어나기 불편한 몸을 일으키며 “고마워. 파리도 싫다고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신다.

이화학당 영문과 3회 출신이신 할머니는 결혼 1년 후 이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시겠다며 떠나 반세기를 넘기고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소식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훌로 평생을 살고 계신다. 옛날 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반사도 하셨다는데, 이제는 영락교

회 사회부 가정복지사역을 하시는 권사님의 방문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시다.

“할머니! 우리 찬양 부를까요? 몇장 부를까요? 할머니가 먼저 선창 하세요.”

젊었을 땐 피아노도 잘 치셨다면서 방바닥에 피아노 치는 시늉을 하시며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있는 힘을 다해 목청껏 부르십니다. ‘만남’지 이달의 말씀 이철신 담임목사님의 글을 읽어 드리고, 복음제시를 통해 천국 갈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며 꼭 안고 기도해 드리면 창백했던 얼굴엔 미소가 떠오르고 헤어지기 섭섭해 눈물 흘리신다.

사역이 힘들 때면 자신의 노년기를 그려본다는 A 권사님. 말씀, 전도 등으로 말벗이 된지 3년 만에 할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한다.

섬김이 곧 전도임을 깨닫고

유방암 수술 받은 후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병원 근처도 가기 싫었던 K 권찰님은 입원중인 환자들을 위해 샴푸 봉사를 하게 된 지 벌써 4년째가 되



었다. 항암 치료 후 오른쪽 팔을 들 기운도 없을 때 구역장님으로부터 금요 권찰공부에 참석 하자는 권유를 받았던 K 권찰님. 인천에서 2시간 걸려 권찰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쉬워 병원 샴푸 봉사를 하게 되었다. 샴푸 기계 1대에 3명의 봉사자가 1팀 되어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 주는 봉사인데, 기계 한대 물을 가득 담으면 여자는 3명 남자는 5명 감길 수 있다. 머리를 감겨 주면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무척 좋아하는데, 이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머리 감겨주시니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감으면 머리만 시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복음제시를 하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원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이 곧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국적인 복음전파

B 권찰님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보호자 한 분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본인은 1년 전에 입원해 샴푸봉사를 받았고, 지금은 부인이 아파서 입원했노라 하시며, 퇴원 후부터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신다. 집은 충청도 당진이라시는데, 대전에도 병원이 있지만 영락교회 권사님들로부터 샴푸 봉사를 받기 위해 부인을 이 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한다. 이럴 때 영락교회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부심을 갖게 되고, 샴푸 봉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

지며 영락교회가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고 하신다.

인천 길병원은 불교 병원인데 처음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거절을 당했으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서 인천 3여전도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동 목욕서비스 봉사도 하고 있는데,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권찰님의 건강도 놀랍게 회복해 주셨다.

B 권찰님의 바람은 교구에서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많아 지역 병원을 맡아 봉사한다면 작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해지지 않겠는가며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C 권사님은 2000년도에 가정복지봉사자 교육을 받고 봉사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 후 3년을 더 봉사하시고 2008년 12월에 사역을 내려놓으셨다.

C 권사님은 “저는 처음 5명을 맡아 돌보아 드렸는데 2분을 천국으로 보내 드렸어요. 노인들은 얘기 같아서 조금만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금방 마음을 열어요. 한 분이 운명하실 때 저를 찾는다 하길래 부지런히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편안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라며, 독거 노인들은 낮을 가리기 때문에 봉사자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자신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 권사님처럼 천국 가실 때까지 돌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젊은 분들이 봉사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은 있다고 한다. 바로 구역에서 구역식구들이 봉사자가 되어 구역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육이 2000년도에 한번 뿐이 없었으며, 120명이 수료 후 지금 40명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바라기는 이 교육이 2009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해마다 이어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귀한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인증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거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분들은 외로움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모두 외로움에 떨고 계시며, 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주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심방으로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 예수께 하듯 노인들에게 봉사하시는 C 권사님의 삶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다. C 권사님은 “저의 남편은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 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눔을



▲ 취재에 답변하는 가정복지봉사팀 권사님들

주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봉사의 손길을 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사양합니다. 2009년부터 저를 영적 보호자로 돌보아주길 원합니다. 전화로 심방해주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한국 교회가 실질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가정복지봉사팀은 앞으로도 이 귀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만남

【취재 : 최주현】

가정복지사역 안내 : 정서적봉사 (상담, 전화, 책읽어주기, 산책)

사회적봉사 (행정업무 대행, 배급, 시설입소 주선)

가사봉사 (세탁, 청소, 심부름, 식사)

간호적봉사 (병원안내, 약 수령, 병문안)

신앙적봉사 (성경낭독, 말씀전달, 친양테이프 들려주기)

샴푸봉사 - 백병원 (수요팀 1시30분 ~ 4시, 금요팀 1시30분 ~ 4시)

인천 길병원 (목요일 오전 9시 ~ 12시 30분)

2009 교육혁신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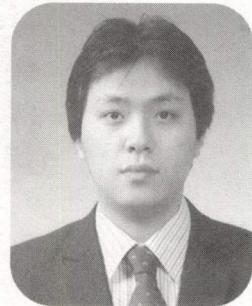
‘교육혁신 사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2009년 중등부 사역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현지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 싱가포르에 한국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끈한 교육문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지나친 열정이 싱가포르 사회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한국학생을 위한 학원들이 들어지고, 치맛바람이라 불리는 한국 부모님들의 촌지(?)관행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씹쓸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역시 ‘교육에 관하여서는 한국민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열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현장의 모습 일 뿐, 삶의 근본이 되는 신앙교육 안에서 열정을 찾아보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빚을 쳐서라도 공부시킨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집의 재정이 빠듯해져도, 먹을 것을 줄이고, 입는 것을 줄이면 줄였지, 교육비로 사용되는 것에는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상아탑(象牙



함승수 전도사
중등부 담당

塔)이라 부르지 않고, 소를 팔아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당의 에어컨은 빵빵해도, 교육부서에는 선풍기도 감지덕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당에서 쓰던 피아노가 노후 되면, 새로운 피아노를 본당에 두고 전에 사용되던 낡은 피아노를 교육부서에 넘겨줍니다.

사용하던 방석, 의자, 캐비닛의 마지막 종착지가 교육부서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선교·봉사·교제 등 교회 외적으로는 풍성하게 재정을 사용하지만, 교육부서에는 인색한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교육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 하지만, 교회는 다른 사역들을 위해 교육부서

를 희생(?)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이면 열 교회 모두, 우리는 교육에 대하여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소를 팔아서라도 공부만큼은 제대로 시키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열정을 기억하며 영락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혁신사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교육혁신 사역팀’은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영락교회의 교육을 진단하며, 영락교회 교회학교가 새롭게 나아갈 로드맵(Road_Map)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계’와 ‘눈높이’라는 중요한 두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은 교육혁신사역팀에서 연구하여 만들어 낸 교육 커리큘럼을 부서와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점을 중등부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1. One-Point 교육

One-Point 교육이란 주일학교 설교말씀(예배)과 소그룹 성경공부(공과공부), 주중 신앙교육활동(묵상)을 동일한 내용과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ne-Point 교육을 위해서 ‘묵상(QT)사역’

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APPLE지(중등부 자체 묵상집, 2009년부터 청소년 매일성경 판권을 사용하여 제작 중)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주중신앙활동(묵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설교는 학생들의 묵상 본문 내용과 일치시킴으로써 주중신앙활동과 주일설교 메시지의 흐름을 같게 하며, 공과공부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며 살아온 삶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예배 + 공과공부 + 주중신앙활동’을 묶는 One-point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One-point 교육을 위해서 학생을 위한 묵상학교(2월 중 예정)와, 교사를 위한 묵상지도자학교(2월 예정, 4주)를 상시적으로 개설, 구체적인 도움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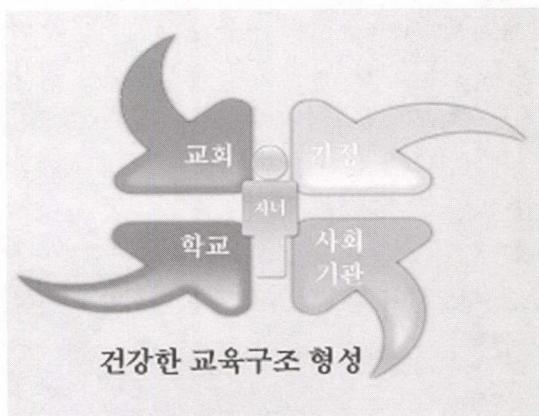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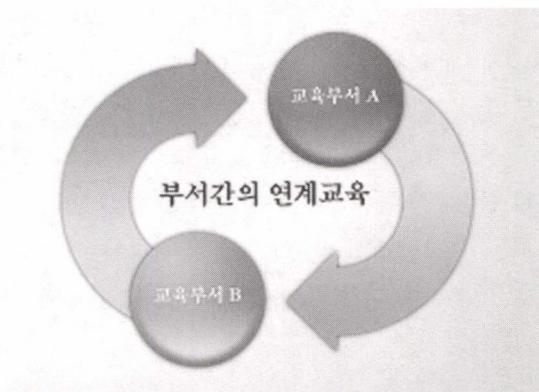
2.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교육 체계화 – 가정 연계

- 연계 교육이란 교회와 가정, 교회학교의 부서와 부서들 간의 교육을 통일성 있게 연결하여, 전 세대 간의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지향함을 의미합니다.

-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를 위해선 지속적인 부모 참여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부모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부모 초청예배, 학부모 기도회 및 영성집회, 부모와 함께 하는 테마 여행이나 가족 캠프와 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재 단회적으로 진행되는 부서별 부모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록 통합적 부모 교육과정을 체계화 할 예정입니다.



연계 교육을 위해서도, 중등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묵상(Q.T)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묵상집(장년용 매일성경, 청소년용 매일성경과 본문 동일)을 제공함으로써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가정 신앙 교육활동(묵상 나눔을 위한 가정예배 등)을 지원하게 되며, 학부모님들을 위한 가정 묵상 지도자학교(2월 중 예정)를 개설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서간의 연계를 위해 묵상사역을 공유합니다.

이미 아동부는 지난 몇 년간 묵상사역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에 아동부의 사역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중등부 사역을 열어 둘 예정입니다. 나아가 애플사역을 고등부와 공유함으로서, 중고등부가 One-Point 교육은 물론이고, 연계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월 중 진행 될 교사 소그룹 지도자 학교를 아동부, 고등부와 함께 준비하여 묵상사역을 중심에 둔 여러 부서의 연계성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동계수련회 시 학부모 수련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한 YDS학부모 학교(10주), STUMP(그루터기) 학부모 학교(5주) 및 학부모 초청 예배(연 4회) 및 세미나(2회 예정)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님들을 가정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역자, 교사, 학부모님들을 위한 정기 기도모임을 준비함으로써, 부모님들의 교육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3. 주말학교 강화

- '은사계발', '제자훈련', '선교 및 봉사'라는 3가지 주제를 심화하여,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주말학교를 체계화합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STUMP 학교(10주)를 개강합니다.

STUMP는 Student Training for Ultimate vision, Meeting, Personality의 약자로서 이사

야 6장 13절을 기초로 한 잠재적 비전과 공동체, 그리고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학생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선교 및 봉사'를 위해, STUMP 학교를 이수한 학생들은 다음단계의 주말 훈련학교인 YDS 학교(강의15주, 비전트립: 10일 이내)에 지원하게 됩니다. YDS는 Young-Nak Youth Disciple School의 약자로 중등부 최종 선교 훈련학교이며, 중등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승중학교와 싱가포르 한인 교회를 베이스로 해외 비전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사계발'을 위한 주말학교로서 Rainbow-School(무지개 학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ainbow-School 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7가지 은사학교로서, 올 해 상반기에 유수한 강사진을 모시고, 문화학교, 음악학교, 성경논술학교, 위십학교, 영상학교, 영어·성경학교, 디자인학교 등의 7가지 영역의 은사 학교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4. 선교 훈련 및 사회봉사 훈련을 교회학교 부서별 매뉴얼화

- 연령별로 선교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계발함으로써, 체계적인 선교 훈련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며, 영락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연령별 학생들의 기독교적 봉사훈련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영락교회 대를 이어 내려온 선교와 봉사를 삶에서 실천하는 영락인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중등부 하계 수련회를 봉사 수련회의 성격으

로 변환하여, 영락사회복지재단등과 연결하여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중등부 인원을 3~10 그룹으로 나누어 디아스포라 시켜 봉사활동을 한 뒤, 교회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사역을 보고하는 형식의 봉사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회적인 실시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중 봉사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등부에서는 교육혁신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적용하며 사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간이며 천년지근본이다' 라 하였습니다. 백년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육을 중요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이 천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근본을 세우게 될 것이라 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의 커다란 줄기 안에서 중등부 역시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락의 백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힘쓰고 애쓰며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 초반에 나눈 한국 사회의 대단한 교육열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영락교회 교육을 위해 기도와 관심, 더 나아가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락교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만남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30년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 **내담자**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그저 ‘후보선 수(bench warmer)에서 벗어나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 왔습니다.

저는 유학준비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학교에서 박사과정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국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으로 분주한 가운데 지난주에 병원을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학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놀랍게도 양쪽가슴에 1센티 미만의 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악성이나 양성이나 판단을 할 수 없으니 3개월 뒤에 추적검사를 하자는 소견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순간 어안이 병벙하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필 유학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물론 3개월 뒤에 가서 암이 아니면 다행일 것이고, 양성이면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은 해 보지만, 지금 유학준비를 하면서 재정적으로는 학비를 모으는데 빠듯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정신이 반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팽겨 쳐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고 소리도 질러 보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제 겨우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이 평탄했다면 이까짓 건 견딜 수 있겠다 싶겠지만, 정말 그런 삶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더 시련을 주려고 하시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정말 3개월 후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제까지 내가 믿어온 신앙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받아드릴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서 글을 옮려봅니다.

고통은 그 사실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 중요합니다.

■ **상담자** : 마음의 큰 근심으로 인해 고통가운데 계신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내담자께서 처하신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참 막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이

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당한 문제이기에 내담자께서 겪는 어려움은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담자님! 제가 하는 말이 현재 고통을 겪고 계신 내담자님의 실상을 모르는 단순히 입 바른 소리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100%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면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떠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담자님 고통에 있어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2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는 80%는 반응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말은 사실보다도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몰려올 때 그 고통 자체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통은 불행이다’라는 하나의 도식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모두에게는 크고 적은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느냐’를 생각해야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 앞에 다가온 고통의 문제를 비록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크게 바라보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그 문제에 눌려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문제보다 더 크게 가짐으로 인해 오히려 그 문제가 작아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항상 협통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고통과 또 말 못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보다는 그 고통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당신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운데 협통한 일만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통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담자님 3개월 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기도함으로 기다립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영락교회 상담부】

출발 전에 기도하고 운전 중에 축복하기

“무사고 운전의 비결은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고, 운전 중에는 마주치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교통전문가로서 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교통 연구원에 들어와서 근무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교통 연구를 20년 넘게 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1983년에 운전면허를 딴 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건의 교통사고도 내지 않고 무사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다.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자

이렇게 2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한 비결을 말한다면,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 전에 30초 정도 간단히 기도하고, 운전 중에는 마주치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때이건 운전을 시작할 때는 출발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에 오르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출발하기 전 자동차에 앉아 시동을 건 후에, 안전띠를 매고 워밍업을 하는 약 30초 정도 간단하게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내용은 ‘직장까지 가는 동안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운전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출근하는 도로위의 운전이 매우 즐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른 운전자가 내 앞에 끼어들어도 원래 양보하려고 마음 먹었던 터라 별로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 또 그러다 보면 운전을 하며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다.

또한 기도하는 동안 자동차를 워밍업 시키면 자동차도 윤활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곧바로 출발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아지고 수명이 오래 가게 된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의 운전이 형통

요즈음 하루의 시작을 새벽기도로 시작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한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도 자동차에 올라 먼저 기도하고 나서 차를 출발시키도록 하자.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형통하듯이, 기도하고 나서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운전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에게 짜증낼 일도 없어지고, 다른 차와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일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차를 출발하기



설재훈 집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교통방송(tbs)에서 교통 관련 대담 출연을 마치고 기념촬영한 필자(왼쪽 첫 번째)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운전 중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자

운전을 할 때는 운전 중에 마주치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도록 하자.

세간에는 “목사님도 운전대를 잡으면 욕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운전하며 욕을 하는 대신 ‘복을 빌어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운전을 하며 종종 내 앞과 옆에서 가는 차량의 운전자를 보며 마음 속으로 그 사람의 가정의 행복과 직장에서의 성공을 빌어주곤 한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내가 바라는 만큼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빌어준다.

서로 축복해주면 모두가 행복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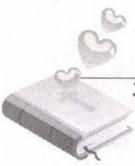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느낌에 한결 마음이 상쾌해지고 뿌듯해진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빨리 가기 위해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비록 상대방 운전자가 내가 빌어준 복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처럼 복을 빌어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운전을 하며 앞과 뒤의 운전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움츠러들어 남에게 베푸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듯하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운전 중에 만나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날



‘예언’이란 무엇인가?



정 창 화 전도사
교사교육부 담당

예언(豫言)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거나 환상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초월적인 힘’을 생각한다. 십여 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거기서 보면 노스트라다무스가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또한, 주변을 살펴보면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일부 기도원 등에서는 예언기도를 해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결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하듯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예언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라는 단어의 요약은 바로 이것이다.

“예언은 현재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다.”¹⁾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nabi)라고 한다. 나비는 대변인이나 연설가 등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나비’를 아카드어 ‘나비움’(nabi' um)과 연결시키는 데 동의한다. ‘나비움’은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²⁾

흔히들 예언자적 선포, 예언자적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시대와 세태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외침을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선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 이러한 외침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동참하는 분들도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 생각된다.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자가 제 아무리 정의와 공

1) 이종록, 『여호와 삼마를 향하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39쪽.

2) 위의 책, 56쪽.

의를 부르짖은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서 늘 죄를 짓게 되고,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본을 보이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그 외침을 들으려고 할 것이며, 누가 그 말에 감동받고 동참할 수 있겠는가?

요즘 세상은 극도로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누가 자신의 이익을 벼려가며 목숨을 바쳐 불의에 항거하려고 하는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관심도 가지지 않는 비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하지만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선포한다.

예언자들은 대부분이 그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예언을 선포한다. 이사야와 같은 ‘순종형’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와 같은 ‘거부형’,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사기형’ 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만 안주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스스로의 편안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불의에 대해 저항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오늘 날이 있기까지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외치는 부르짖음이다.

예언의 정의를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기 위해 세상에 외치는 부르짖음인 것이다. 그것이 아주 보잘 것 없는 외침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결코 이사야와 같이 위대한 소명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소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예언이다.

대학시절 양화진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영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순교한 ‘어니스트 베텔’의 비문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려 한다.

“내가 한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한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곤명’



최종영 집사
선교훈련팀 스텝

2008년 선교훈련 가을학기를 마치고 12월 8일부터 13일 까지 권오성 목사님을 비롯한 11명이 동북아(K)로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8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모여 출국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팀원들 중엔 이번 비전트립이 처음인 팀원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긴장되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표정들이었다. 밤 10시를 넘겨 K공항에 도착, 마중 나오신 지사장님과 함께 숙소로 향했다. 첫날은 너무 늦어 잠깐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 민족촌

9일 공식적인 첫날, 일행은 작은 소수민족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족촌을 방문 했다. 방문 목적은 소수민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해 그 곳의 문화와 풍습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운남성에는 기독교인들이 80%나 되는 묘족을 비롯해 라오족 등 27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다.

묘족의 교회도 돌아보고 라오족에 들렀을 땐 같이 찬양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어로 찬양하는 라오족 청년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작은 소수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름 모를 그 누군가에 의해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셋째 날(10일), 첨보작전을 방불케 하며 방문한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영어교육을 하는 곳을 방문했다. 그 곳엔 6명의 아이들이 훌륭한 사역자를 꿈꾸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공부하는 곳인데 교육 자료와 책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 곳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원강현이란 곳으로 향했다.

원강현 삼자교회에서의 수요예배

고속도로를 3시간을 달려 원강현에 있는 삼자교회에 도착해서 그 곳 교인들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저녁식사 후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오선지가 아닌 숫자가 보이는 중국 찬송가는 따라 할 수가 없었다. 알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웃기만 했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했다. 50여 명 찬양대의 찬양은 힘 있고 은혜로웠다. 우리도 준비한 특송으로 답하였고, 권오성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다.

예배를 마친 후 오신 분들과 “예수 아이 니, 평안(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중국말로 인사를 나누며 악수도하고 안아주기도

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서로의 눈에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아마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넷째 날(11일), 다시 Kunming으로 건너와 지사장님의 피아노학원과 빈민가에 있는 한 대안학교와 같은 곳인 희망애심학교를 방문 했다. 좁은 문으로 우르르 나온 꼬맹이들, 1~2학년 정도의 작은 키에 맑은 눈망울엔 “누구세요?”라고 묻는 물음이 크게 쓰여 있었다.

Kunming 시에 급격히 노동인구가 몰려들면서 방임아동도 같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아서 꼬질꼬질했지만, 아이들이 가진 매력은 ‘순수함과 예쁨’이었다. 정신없이 한쪽에선 풍선아트를, 다른 한쪽에선 페이스페인팅을 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배출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가정들이 하루 속히 복음화 되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 날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 왔다.

다섯째 날(12일), 공항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작품인 구향동굴과 라이카 석림을 돌아보고 역시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탄을 절로 나오게 하기에 충분 했다. 장로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도시락도 자연과 더불어 맛있게 먹고

▲ Kunming 희망애심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늘 비전트립을 가면 무지개를 보곤 했었는데 이번엔 예외였다.

옆 동네처럼 익숙해진 ‘쿤밍’ 땅

한국을 향해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Kunming시가 하나의 접처럼 사라질 때에야 Kunming에서 떠나고 있음이 실감났다. 매일 차를 타고 Kunming시의 여기저기를 이동했기 때문에 어느덧 앞 동네처럼 익숙해진 곳이었다.

이곳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처럼 꼭 12명이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출발 할 땐 11명이었는데, 그 곳에서 한 명이 합류하게 되어 12명이 Kunming의 땅을 밟으며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 할 것이다.

한국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동북아,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만큼이나 그 땅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빠르게 늘어나길 소망하며, 그들이 다시 세계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드린다. 만남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 구역지도자 훈련과정을 마치고 -



김 경 옥 권사

용인·화성교구 6구역장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립보서 4:9)

혹한의 겨울을 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모두들 힘겨워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니라.”라고 환란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

‘거룩한 발자국’ 보기로 소망하며

어떤 분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그려 보았다.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모래밭에 찍힌 발자국을 보았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혼자 걸어온 길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계심에 힘이 되었나보다. 어느 날,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는 그때는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 투정을 했다고 한다.

“주님, 내가 힘겹게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은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윗글은 얼마 전에 발간된 이철신 목사님의 설교집 ‘거룩한 목마름’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은

설교 중 한 대목을 발췌 한 내용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쓰러질까봐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고 업고 가시며,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등에 업혀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또한 주님의 거룩한 발자국을 볼 수 있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한다.

포기했을 때 용기를 주신 목사님

지난해 나는 구역장으로 임명되어 구역지도자 훈련을 받았다. 이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애썼던 시간을 나누고자 한다.

2008년 새로 출범한 19교구인지라,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침 출근 시간에 수지에서 교회까지 나오는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부고속도로

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영락없이 차 안에 갇힌다. 피를 말리는 긴장된 시간을 차안에서 보내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가?’ 하는 갈등을 벌였던 두 번째 날, 지각을 하고나서 ‘못할 것 같다’고 포기했을 때, 용기를 주시며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께 지금 생각하니 매우 부끄럽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고속도로 사고로 길이 밀린 적이 없어 지각도 결석도 없이 수료할 수 있었기에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들

첫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말해보라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경험 속에 또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각자의 간증을 나 이외 두 분은 명확히 대답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섭리를 몸소 체험하지 못함을 깊이 느끼며 죄책감이 어깨를 눌렀다. 남편에게 ‘권사라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사직분 반납해요’ 하는 소리도 들은 터였다. 영락교회 권사로써 나의 신앙의 자세를 부끄러워하며 이 훈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동안 계을려서 못했던 기도시간을 서서히 늘려가며 기도의 삶이 체득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도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 훈련시간 중의 한때. 사진 왼쪽이 필자, 두번째는 권오성 목사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 밝기 전 한적할 때 은밀히 아뢰라’는 경건의 생활을 배우며 기도생활을 실천해 갔지만 새벽잠이 많은 나로서는 간간이 놓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는 늘 변화되고 새로워 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느헤미야 같은 리더의 삶을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으며, 한걸음 한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리스천으로서 모습을 갖추어가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아래, 은총 속에 1년 과정의 훈련시간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나에게 귀한 추억이 되었다.

비록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낫고 약한 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 붙잡고 충성된 구역장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해본다.

모든 훈련 일정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저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권오성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만날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 제2기 ‘기독학부모교실’을 마치고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신 6:5~9)

편성되고 서로의 자녀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만해도 저는 그저 세상의 보통 엄마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 강의중인 기독학부모교실

시간이 흐르자 바보였음을 깨닫게 되고…

기독학부모교실, 처음엔 그저 주위사람들이 기독학부모 교육이 좋다기에 막연한 마음으로 그 곳에 갔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맞추어 조가

그런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르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으며, 주께서 주신 너무 귀한 지체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럽기 짹이 없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에게 제가 한 일에 대하여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 했거늘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망치고 있었구나’라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그릇된 교육관을 알게 된 이상 이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교육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독학부모로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할



▲ 기독학부모교실 수료식 기념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세웠습니다. 자녀를 내 생 각에 끼워 맞추기 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해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기독학부모로서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

저의 아들은 아직 사춘기를 겪기 전이라 크게 문제를 일으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없지만 저는 아들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저의 마음이 곧 아들의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른 채….

‘성품 교육’의 필요성

자녀와의 관계회복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신 양교육, 성품교육이었습니다. 바른 신양교육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했고, 꾸준한 성경읽기와 기도생활, 그래서 저는 교육 선언문에 이 세 가지를 적어 놓고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품 innovation’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절제와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경청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워 가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이자 선교입니다. 만남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돌진

유창원 목사님댁을 찾아서

신선함, 당혹감

목회자 탐방을 위해 찾아뵙겠다는 기자에게 “저희 집에 오시면 반드시 식사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며 화통한 웃음을 터뜨린 유창원 목사님. 맛은 없지만, 식사는 꼭 해야 한다며 다소 긴장하게 되는 첫 대면의 부담감을 덜어주신 목사님.

덕분에 기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탈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벨을 눌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고 정결하게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깍듯하게 맞이하시는 사모님과 예의바른 두 아들의 인사를 받으며, 화통하게 웃으셨던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 찾아보았다. 곧은 자세로 앉아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목사님을 마주 대하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잠시 난감했지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친숙한 김치찌개의 냄새가 다시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하나님과의 만남

불교집안에서 2남 4녀의 막내로 자란 목사님은 기독교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에 배정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친구들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교목이셨던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칭찬해 주었는데, 욕심 많은 학생 유창원은 단지 칭찬받고 싶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학교와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된 목사님은 고2 부흥회 시간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아버지께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선언하고 집에서 쫓겨난 목사님은 어머니의 애원으로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호적을 파가라고 하셨으며, 형님으로부터 날아오는 매는 피할 수가 없었다.



▲ 유창원 목사님 가족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창원 목사님,
작은아들 보석, 윤 양 사모님, 큰아들 보훈)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던 중 신학을 하기 위해 영어가 필요할 것 같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누님이 살고 계신 행당동 근처의 한양대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목사님. 학비를 대주던 누님으로부터도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게 된 목사님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한도전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한 순간부터 무섭게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며 생활하던 목사님은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안양교회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맡아 3배 이상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시작하게 된다. 잠시 제주도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은 안양교회의 부름을 받고 부목사로 다시 섬기던 중 유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 유학을 결심했으니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사모님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하며 사라처럼 웃었다고 하신다.

그러나 한 번 하겠다면 꼭 하고야 마는 목사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모님은 목사님의 꿈을 위해 함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에 이른다. 전주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모님은 예배시간 뿐 아니라 친구 모임 등에서 특별히 약속시간을 잘 지키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목사님이 유학생 활동도 잘 감당하리라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 보훈이가 4살,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보석이가 백일을 막 지났을 때 영국으로 떠난 목사님은 버밍햄(Birmingham)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

청년들에 대한 열정

영락교회에서 젊은이예배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목사님은 청년들과의 만남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른다. 주일이면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 베다니홀에서부터 청년들의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위해 50주년 기념관 계단을 100m 달리기 하듯 뛰어다니신다고 한다.

청년들과 친해지기 위해 하루 2명씩 전화를 해 일 년 동안 600명과 전화 통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목사님. 생각나는 대로 청년들의 직장을 심방하려는 목사님.

청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제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사모님.

동분서주 뛰어다니시는 목사님을 보며 오히려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시다가 쓰러지시겠다”며 “저희들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니, 이렇게 청년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을 영락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며 맛있는 식사와 함께 탐방을 마쳤다. **만남**

【취재 : 유승호】

기독위에 세워진 반석같은 믿음

김 성 수 목사님 댁을 찾아서

토요일 오후

성동·광진교구 식구들과의 만남, 교육부 회의 참석 등으로 이번 주는 시간을 못 내겠다며 1월 중순 이후에 만나자는 목사님. 그러한 목사님께 마감시간을 이유로 이번 주 중으로 뵙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기자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의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시간대를 빼앗으려니 죄송한 마음에 탐방을 빨리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신당동 목사님 사택을 찾았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탐방을 빨리 마쳐야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기도

1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성수 목사님은 정작 본인은 장로로 섬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한다.

어린 시절엔 목사의 삶이 고단해 보여 의사가 되어 장로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이과를 택했던 목사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려주었고, 급기야 고2 부흥회 기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으로부터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안수기도를 받기에 이른다.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순간 방언이 터져 나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확신한 목사님은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연세대 철학과와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친 목사님은 현재 교육학박사 논문과정만 남은 상태다.



▲ 김성수 목사님 가족

(오른쪽부터 김성수 목사님, 큰아들 동현, 작은아들 동인, 정 선 사모님)

사모님의 기도

대학교 시절 CCC(한국대학생선교회) 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사모님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도중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 준 얼굴이었다고 한다. 사려 깊고 온유할 뿐 아니라 화끈하고 통쾌하기까지 하여 만나는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사모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이다.

‘남편인 목사님이 크리소스톰(황금의 입을 가진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교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겸손과 지혜를 겸비케 하시며 교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소서.

사모인 저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하시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돋는 배필이 되게 하소서. 아이들을 배려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평생을 향한 주의 뜻을 위해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동현, 동인 두 아들의 체력·지력·영력을 강건케 하소서. 지혜·겸손·남을 배려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자신을 향한 사랑·남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소서.’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 목사님 가정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목회 비전

반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4년, 장석교회에서 부목사로 청·소년부를 담당하며 4년, 평광교회에서 부목사로 교육부와 교구를 맡아 4년을 사역하신 목사님은 이제 한국교회의 어머니와도 같은 영락교회를 통해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영락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목회사역을 통해서는 사역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목사님의 목회비전은 ‘성도들의 전인적인 성장’이며, 맡겨진 성동·광진교구 식구들이 통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삶 가운데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돋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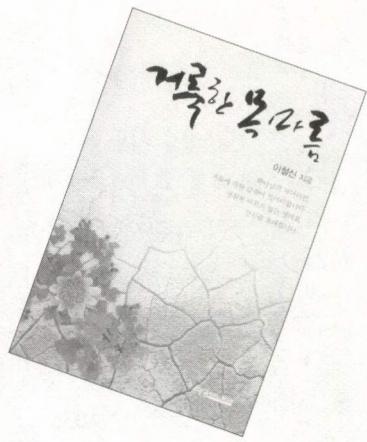
고등부는 전임목사님인 김동호 목사님이 체계를 잘 잡아 놓으셨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진행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일치해 영락교회 고등부의 비전이 보인다고 전했다. “고등부 학생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의 그 동안의 청소년 사역을 위한 연구와 현장경험이 고등부 사역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만남**

【취재 : 유승효】



“누구나 한번쯤 참고하고 되새겨볼만한 책”

이철신 담임목사님 설교집
‘거룩한 목마름’ 호평



우리네 삶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지난 연말 홍보출판부가 기독교 전문출판사인 예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펴낸 이철신 담임목사님의 설교집 ‘거룩한 목마름’이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도서전문 기자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financial news

파이낸셜
뉴스

다음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파이낸셜뉴스’ 신문이 지난 신년호(1월 1일자)에 ‘새로나온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란 타이틀과 함께 이철신 목사님의 ‘거룩한 목마름’을 서평 한 내용을 전문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가족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한다니까”
나이 쉰이 훌쩍 넘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한 아주머니의 고백이다. 서른 세 살의 아들은 장가를 갔고 서른 한 살의 딸은 제 일이 바빠 얼굴 보기 힘들다. 얼마 전 은퇴한 남편은 자나 깨나 골프 이야기뿐이다.

쿡쿡 쑤신 무릎을 감싸 쥐고 밑반찬을 해 날라도 자식들의 공치사는 그때뿐이요, 뭔가를 부탁할 때만 살랑 살랑대는 모습이 오히려 암입더란다.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몸져누워도 ‘병원 가보라’는 무덤덤한 말뿐이니 처량한 감정에 젖어 눈물이 절로 날 때도 많았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여놓은 교회에서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다. 어찌나 친절하고 오사바사 챙겨주는지 가슴 한구역이 먹먹할 정도다. 일주일전에 예배를 드리다 ‘콜록’ 하고 기침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 주엔 여러 명이서 ‘감기는 좀 괜찮으냐?’며 안부를 건넨다.

그렇게 그는 교회에 빠졌다. 아침잠이 그리도 많았건만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일이라면 뭐든지 발 벗고 나섰다. 톡하면 활동하던 우울증도 사라졌고 표정도 한층 밝아졌다.

교회의 문턱은 낮고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종교를 가져야겠다’ 혹은 ‘신실한 믿음을 다져야겠다’는 거창한 목적의식보다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서 혹은 극도

로 고독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담임)가 자신의 설교 내용을 재구성해 만든 ‘거룩한 목마름’은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교회를 찾은 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과도한 ‘교회 언어’를 사용했다거나 정치색이 짙은 편도 아니다. 수필의 형식을 따른 각각의 글은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중반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설교의 모양새를 띤다.

이 목사는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데 몇몇 연예인의 경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자살이 죄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에 자살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고통과 고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을 해소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로 이 책의 출간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또 “사람은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내면이 정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급기야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면이 정리되며 질서가 잡힌다”고 궁극의 목적을 밝힌다.

책은 모두 5장으로 나뉜다. 제1장 ‘다시 회복된 사람’에서는 믿음과 섬김을 주제로 한 5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연예인에 훌린 10대와 한류스타를 쫓아다니는 일본 중년 여성의 모습에서 2000년 전 예수를 쫓아다닌 추종자들의 모습을 교차시킨다. 제2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에서는 기다리는 믿음을 주제로 ‘수령 속에서도 믿는 자가 이긴다’는 진리를 설파한다. 제3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역설한다. 제4장 ‘기도, 천국의 열쇠’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해, 제5장 ‘광야를 지나’



에서는 능력 있는 삶의 비결과 위기를 이기는 사정에 대한 설교가 담겨 있다.

각 이야기는 이 목사 본인이 겪은 주변의 이야기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작된다. 가족과의 이별, 가짜 명품에 관한 이야기, 설교 중에 느낀 점 등 생생하고 소박한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덕분에 책장은 쉽게 넘어가고 설교는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종교는 달라도 선(善)을 갈구하는 건 매한가지다. 교회를 벗어난 이들 역시 사랑과 믿음 속에서 행복하고자 한다. 경계에 얹매이지 않고 누구나 한번쯤 참고하고 되새겨 볼만한 책이다. <박○○ 기자> 만남

● 마음열기 : 살아오는 동안 가장 생명의 위급함을 경험한 적은 언제 였습니까?

● 찬송하기 :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찬송 284장)

● 기도하기 : 구역모임을 통해 늘 새로운 교제가 깊어지게 하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요한복음 3:1~7):

1.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요 7:50, 19:39)

2.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마 16:15~16, 롬 10:9)

오늘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3.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새로워짐, 개혁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의 의미로 거듭남을 사용하십니다.(고후 5:17)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어떤 의미입니까?(5~7절)

4. 거듭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엡 2:8~9, 롬 10:9~10)

※중생(rebirth): 다시 태어남,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됨

5.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마무리 기도하기 :

지적인 암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과 변화가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하소서.

- 마음열기 :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변화 되었던 부분이 있거나 주위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찬송하기 : 신자 되기 원합니다.(찬송 463장)
- 기도하기 :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 삶에 변화를 주옵소서!
- 말씀 읽고 나누기 (요한복음 3:8~15):
 1.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무엇과 유사하다고 했습니까?(8절)
 2. 바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설명해 봅시다.(8절)
 - 신비성-
 - 사실성-
 3. 니고데모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중생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엇을 말씀 하셨습니까?(11~12절)
 4. 교회 안에서 중생이나 믿음과 같은 영적인 사실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잘 알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15절)
 5.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실제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가 따라 옵니다.
바람소리가 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듯이 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마 5:14, 고후 2:15)

- 마무리 기도하기 :

거듭남의 능력이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나오게 하소서!
나와 가족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안에 밀을 뿌리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 성도 일동 합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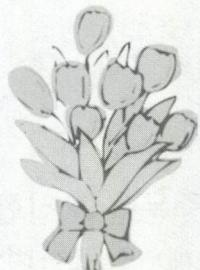
❖ 새가족 (등록기간 : 2008.12.17~2009.1.11)

날짜	성명	교구	구역	날짜	성명	교구	구역	날짜	성명	교구	구역
08.12.17	정지윤	80	888	08.12.21	김현주	14	0	08.12.23	김지효	14	25
08.12.20	이준택	6	39	08.12.21	노지호	3	35	08.12.23	권혜인	90	888
08.12.21	진정지	17	19	08.12.21	임주식	11	54	08.12.23	장선우	3	33
08.12.21	최예은	90	888	08.12.21	권태경	11	37	08.12.23	민경욱	11	33
08.12.21	전수민	7	2	08.12.21	함선희	7	1	08.12.23	이주희	90	888
08.12.21	태서윤	90	888	08.12.21	최정숙	10	58	08.12.23	박재익	90	888
08.12.21	오지훈	1	39	08.12.21	문혜현	90	888	08.12.23	안희우	2	70
08.12.21	이춘원	1	16	08.12.21	송영식	5	2	08.12.23	김서현	7	35
08.12.21	나봉남	1	16	08.12.21	최선헤	8	0	08.12.23	소미나	10	67
08.12.21	이재진	2	22	08.12.21	김철수	8	0	08.12.23	이 진	4	45
08.12.21	반석규	13	0	08.12.21	배용직	4	32	08.12.23	신주은	90	888
08.12.21	황금주	13	0	08.12.21	고옥순	4	29	08.12.23	심준용	4	45
08.12.21	양현규	13	31	08.12.21	정윤수	4	15	08.12.23	엄채빈	4	45
08.12.21	양현우	13	31	08.12.23	정윤정	16	0	08.12.23	최영미	90	888
08.12.21	김예원	13	12	08.12.23	김시율	1	8	08.12.23	안혜지	9	29
08.12.21	이지수	7	0	08.12.23	김예나	13	7	08.12.23	김 건	10	36
08.12.21	이주안	7	30	08.12.23	김민서	13	15	08.12.26	이예림	70	888
08.12.21	박준서	7	0	08.12.23	강한결	6	30	08.12.26	김원준	70	888
08.12.21	최나단	12	47	08.12.23	박예은	90	888	08.12.28	이상규	16	0
08.12.21	유동연	12	45	08.12.23	곽민주	12	2	08.12.28	남혜자	1	28
08.12.21	김선희	12	22	08.12.23	이상욱	90	888	08.12.28	심호진	6	15
08.12.21	최혜원	13	0	08.12.23	이예솔	10	6	08.12.28	문영희	11	48
08.12.21	최하린	13	38	08.12.23	김정화	90	888	08.12.28	강명선	10	0
08.12.21	목진성	8	0	08.12.23	강보람	90	888	08.12.28	이선영	8	52
08.12.21	서영남	8	0	08.12.23	김진영	90	888	08.12.28	강민정	8	0

날짜	성명	교구	구역	날짜	성명	교구	구역	날짜	성명	교구	구역
08.12.28	이종서	15	0	09.01.04	조하람	13	0	09.01.06	전영민	90	888
08.12.28	최황범	19	0	09.01.04	조하민	13	0	09.01.07	김태우	18	49
08.12.30	한광현	2	30	09.01.04	이순자	2	0	09.01.07	한시원	70	888
09.01.01	이유정	4	45	09.01.04	변정민	15	0	09.01.07	김대엽	70	888
09.01.01	윤혜원	4	45	09.01.06	서예원	4	45	09.01.07	위승훈	9	43
09.01.01	조경숙	4	45	09.01.06	정성엽	4	45	09.01.11	박승현	70	888
09.01.01	고한결	4	45	09.01.06	이우성	4	45	09.01.11	박광수	12	0
09.01.01	고은결	4	45	09.01.06	허향진	4	45	09.01.11	양영숙	12	0
09.01.01	홍연아	13	52	09.01.06	양민호	6	10	09.01.11	박희경	12	0
09.01.01	홍대환	13	52	09.01.06	임지혜	4	45	09.01.11	강성진	12	0
09.01.01	김정윤	11	35	09.01.06	김 열	4	45	09.01.11	이보금	12	0
09.01.01	김정현	11	35	09.01.06	이찬일	4	45	09.01.11	강주은	13	52
09.01.01	현종필	4	45	09.01.06	유지나	90	888	09.01.11	최한결	6	36
09.01.04	김경희	9	0	09.01.06	박은정	90	888	09.01.11	고봉서	3	0
09.01.04	유지연	12	52	09.01.06	손종성	90	888	09.01.11	정고윤	11	0
09.01.04	조현주	13	0	09.01.06	박성희	4	45	09.01.11	이재성	70	888
09.01.04	곽선희	13	0	09.01.06	최에스겔	4	45	09.01.11	김경은	4	0
09.01.04	이윤미	6	13	09.01.06	조지원	90	888	09.01.11	정도석	11	0

(77은 국제예배, 80·88은 대학부, 88·90은 청년부, 0은 가등록, 99는 보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례·입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신 것을 일평생
변치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정회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 담임목사 -

❀유아세례 (세례일자 : 2008.12.25)

성명	교구	구역									
조연우	99	52	도현성	9	49	승주한	15	18	오태훈	16	28
이서연	13	2	이주한	7	41	박선우	19	12	조윤호	16	15
이서은	17	54	백지민	4	45	최세아	15	6	이진혁	11	18

❖ **유아세례** (세례일자 : 2008.12.25)

성명	교구	구역	성명	교구	구역	성명	교구	구역	성명	교구	구역
김민서	12	56	최주원	6	12	김하연	15	65	오지훈	1	39
박서연	10	47	김나현	13	5	심윤보	3	27	이예솔	10	6
황은영	8	15	황우주	3	40	황지원	7	31	이진	4	45
박범수	17	19	김하람	9	72	이은서	11	37	민경욱	11	33
정민지	4	2	김진욱	9	12	한수용	14	21	김시율	1	8
김산희	15	52	권예준	10	28	윤다빈	11	50	엄채빈	4	45
양민후	9	3	황준영	15	50	정지연	2	34	김서현	7	35
한지성	4	45	채희진	1	30	김예원	13	12	안희우	2	70
심지유	10	8	최지유	16	4	박준서	7	0	소미나	10	67
구본호	18	20	이한결	4	8	이지수	7	0	심준용	4	45
박지우	2	78	최승원	5	37	유동연	12	45	김건	10	36
가은혜	90	888	김선우	10	17	최하린	13	38	장선우	3	33
김소망	15	21	김태준	2	0	양현규	13	31	김예나	13	7
선하윤	6	41	박지홍	4	23	태서윤	90	888	강한결	6	30
한은정	1	30	권태경	13	62	이주안	7	30	박예은	90	888
최종현	6	0	원윤재	7	65	전수민	7	2	곽민주	12	2
조정우	10	17	박일호	18	55	최예은	90	888			
채서진	2	75	이윤지	19	43	노지호	3	35			
최은서	18	21	홍이선	15	33	최나단	12	47			

‘간증문’ 원고 모집

‘**만남**’ 지가 신앙생활을 통한 성도님들의 체험 및 간증문을 모집합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6~12매(11급 A4용지 1~2매) 정도이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제출방법 : 성명과 주소, 교회직분 및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과 글 관련 사진이 있으면 첨부 바랍니다.
- 제출장소 : 홍보출판부(봉사관 503호), 정은희 간사 ☎ 02-2280-0198
이메일 : hongbo@youngnak.net

2009년도 신년예배, 임직 및 은퇴식 거행



2009년도 신년예배가 지난 1월 1일 오전 1부와 2부로 나뉘어 드려졌다.

예년과 같이 오전 9시 30분 (1부)과 11시 30분(2부)에 드린 신년예배에서 이철신 담임목사님은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말씀을 들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으나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는 새해 모든 제직 및 봉사자들의 임직식이, 2부 예배에서는 은퇴식이 있었는데, 은퇴한 제직들은 다음과 같다.

- * 원로장로(1명) 윤학원
- * 은퇴장로(6명) 한정현, 안봉순, 박광준, 김성배, 류재욱, 박동술
- * 은퇴 협동장로(1명) 강준선
- * 은퇴 안수집사(8명) 정홍래, 안재훈, 홍재성, 이경관, 김현식, 김윤곤, 임응원, 정영주
- * 은퇴 권사(150명)
- * 은퇴 남집사(68명)
- * 은퇴 여집사(45명)

2009년 신년기도회 1월 1일 저녁부터 3일간 가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엡 5:18)

해마다 새해 첫날부터 열려온 신년기도회(사진)가 올해도 지난 1월 1일 저녁부터 3일간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열려 기도원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영하의 추위를 기도의 열기로 바꿔놓았다.

1월 1일 저녁 7시 박재학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개회예배에서 이철신 담임목사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인용, 새해 첫발을 딛는 성도들에게 “새 마음 새 각오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했다.

둘째 날(2일)과 셋째 날(3일)의 기도회 시간과 담당은 다음과 같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다.

- * 2일 06:00 입장원 목사 <건너가지 못하리라>(신 34:1~8)
10:30 정우식 목사 <뜻을 정하여>(단 1:8~16)
14:00 특강 : 조철한 목사 <복지국가의 세 가지 방향>
19:00 민철홍 목사 <2009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 * 3일 06:00 정재화 목사 <내 인생의 빈 배를 채우라> (눅 5:1~11)
10:30 정귀식 목사 <여호수아 본받아>(수 1:1~9)

‘이철신 목사 성역 30년 및 설교집 출판 감사예배’

지난 12월 30일 오후 5시 30분 선교관에서 이철신 담임목사 설교집 ‘거룩한 목마름’(예영커뮤니케이션)출판 감사예배가 있었다. 이철신 목사 성역 30년 감사예배도 겸한 이날 예배는 조철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정귀식 목사가 시편 119:164~168을 본문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정귀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설교의 홍수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행함이 실천되는 설교자인 이철신 목



사님의 이번 설교집이 우리 믿음의 다림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역 30주년 영상을 보며 30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목사님의 모습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철한 목사의 설교집 소개에 이어 이철신 담임목사님은 “사랑으로 인내해 주신 성도들과,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치리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제직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예배 후에는 제1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촬영 및 만찬을 나누었으며,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설교집을 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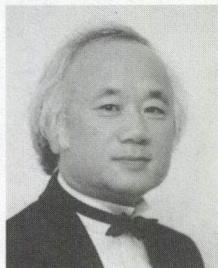
2009년도 제직수련회 성료

2009년도 제직수련회가 지난 11일, 18일 주일 찬양예배시간(오후 5시~6시 30분)에 2회에 걸쳐 진행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마 19:14)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제직들이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11일)은 이승하 목사(해방촌 교회 원로)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전 12:31)는 제목으로 “기적을 믿으며 맡겨주신 일에 큰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2009년도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어 정우식 목사가 ‘예배 안내 및 현금 위원의 지침’에 대해 설명했으며, 모두 함께 “섬기면 행복합니다. 섬길수록 더 행복합니다.”를 외치며 올 한 해 섬기는 제직이 되기를 다짐했다.

한편, 둘째 날인 18일엔 김홍주 목사(신답교회 원로)가 ‘행복한 교회와 제직’(눅 17:7~10)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윤 학 원 장로님, 원로장로에 추대 시무권사 132명도 임직 가결



지난 1월 1일 은퇴하신 윤학원 은퇴장로님이 원로장로에 추대되셨다.

교회는 지난 1월 4일(주일) 주보 소식란을 통해 2008년 12월 28일에 있었던 공동회의에서 윤학원 장로님의 원로장로 추대 건이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신임 시무권사 132명도 임직 가결되었음을 공지했다.

원로장로의 추대는 20년 이상의 시무장로 경력이 있는 분에게 교회가 공동회의를 통하여 추대하는 것으로, 윤 장로님은 1974년 우리교회에 등록하여 1988년에 장로에 장립하셨으며, 1971년부터 38년간 호산나찬양대와 시온찬양대에서 지휘자로 봉사해 오셨다.

2009년 교육혁신사역 프로젝트 ‘영락패밀리가 떴다’ 캠페인 3주 연속 – 베다니광장서 열려



“우리의 자녀가 영락교회의 미래입니다.”
‘믿음의 대를 가정(Family)에 세우고자’
하는 영락교회의 소망을 형상화 한 독수
리형 심볼이 제시된 가운데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를 향한 2009년 교
육혁신사역 프로젝트 캠페인이 지난 1월
4일(주일)을 시작으로 18일, 25일등 주일
에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교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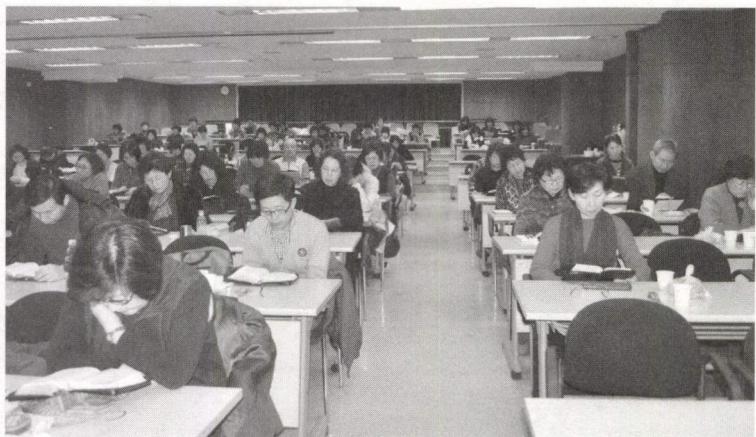
템위원회와 교육시설환경위원회의 활동 등을 전체 성도들에게 알리며, 구체적 계획을 담은 종합 팜플렛을 발행하여 2009년에 진행될 교육혁신 방안에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사로서, 교육혁신홍보관 설치, 패밀리홍보물판매,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패밀리스튜디어가 마련되어 추운 날씨에도 가족단위 성도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또 첫 날인 4일에는 예배시간을 이용, ‘우리의 자녀가 영락교회의 미래’ 임을 일깨워주는 영상물을 상영했다.

제2여전도회 주최로 열린 ‘2009년 첫 성경통독사경회’

2009년 첫 성경통독성경회
가 제2여전도회의 주최로 지
난 1월 12일(월)부터 16일(금)
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
서 열렸다.

임장원 목사의 인도로 12일
오전 9시에 개강한 성경통독
사경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
시록까지 66권의 구·신약을 5



일간 통독하는 행사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거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각 성경말씀에 부합하는 당시의 지도 등을 함께 보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1.3배 빠르기의 CD트랙에 맞춰 성경을 함께 읽었다.

약 2주간 사전 예약을 받아 접수한 100여 여명의 인원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5일간의 장정에 함께 하였다. 한번 참여 한 후에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연속 참여하는 일례는 물론, 자녀들을 데리고 식구가 함께하는 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이 성경통독사경회는 올해 1회성의 행사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온 정기행사로서, 처음에는 구약, 신약을 나눠 여름과 겨울에 진행하였고, 올해는 구·신약을 함께 진행하였다.

임장원 목사는 “인원수에는 장단점이 있어 현재의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기회를 놓치기도 해 아쉽다”고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더 깊은 신앙을 갖기 바란다.

【취재 : 박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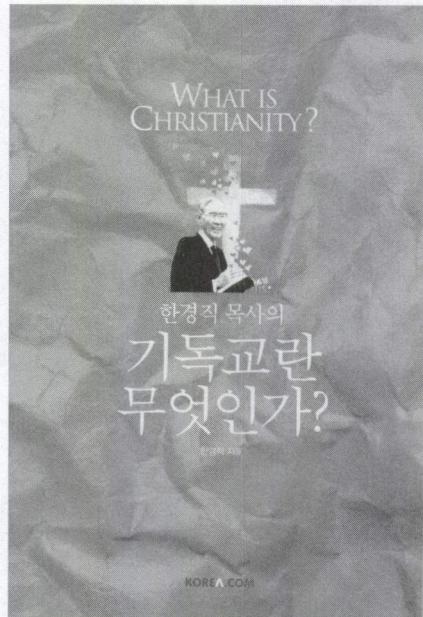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개정판 발간 대성그룹 출판사업부서 영·한 대역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의 개정판(사진)이 영·한대역본으로 다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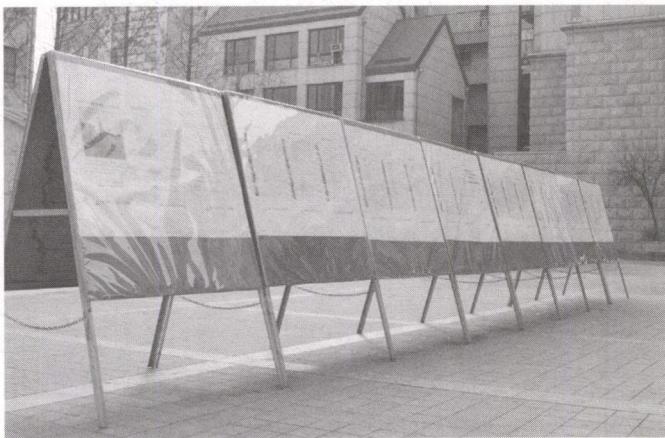
1956년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당시 기독교방송국에서 방송하신 원고를 토대로 하여 그해 6월 초판을 낸 ‘기독교란 무엇인가?’는 그간 우리 교회 선교부가 소책자로 엮어 440여 만부를 발행하여 선교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게 한 책으로서,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대성그룹 출판사업체인 대성닷컴(주) korea.com이 한 목사님이 말년에 쓰신 자료들을 보완하여 새로 개정판을 낸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영·한 대역으로 되어있어 영어권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양장본 디자인에 일러스트를 추가하여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

*대성닷컴(주) korea.com발행, 가로 13.5cm 세로19.7cm(총 145쪽) 정가 7,000원



‘2009년 항존직 선거’ 소식 (계속) 합동 기도회 갖고 후보 공시



2009년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로후보 80명과 안수집사 후보 129명의 합동 기도회가 지난 1월 11일 5부예배후 봉사관 지하1층에서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인태장로)가 주관한 이 기도회에서는 박순태 장로의 기도와 이철신 담임목사의 ‘항존직 후보로서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은 후, 이광욱 목사의 인도로 ‘모두

가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항존직선거규정에 의해 확정한 후보들을 기호와 함께 공시했다. 투표는 주일인 2월 1일과 8일, 15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공시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장로후보 <80명, 기호 순>

1 윤정자	2 김현순	3 이근영	4 이국영	5 장원호	6 조건진	7 박노석
8 한영상	9 최경오	10 임종술	11 신동윤	12 김충손	13 김광성	14 김옹환
15 변재관	16 장정하	17 이상은	18 이영철	19 김재완	20 박명하	21 윤웅용
22 황인수	23 정경섭	24 정영근	25 노준겸	26 강현철	27 지동춘	28 이종근
29 이길용	30 김원상	31 박호전	32 김순미	33 공덕호	34 김명철	35 양공석
36 한동환	37 박석균	38 안인수	39 박대명	40 박재철	41 윤재명	42 김귀열
43 강 용	44 박관용	45 김형윤	46 이광식	47 이창민	48 박성만	49 이상진
50 김영대	51 정천우	52 주 용	53 한경호	54 유영세	55 장정립	56 박동엽
57 승상남	58 이한구	59 윤상우	60 김용석	61 이석호	62 탁영환	63 이기출
64 김경오	65 안기천	66 김지영	67 심규주	68 장한수	69 김종복	70 안중태
71 박홍준	72 이영학	73 황광성	74 인형식	75 이용규	76 김영철	77 윤극명
78 송대량	79 김동구	80 김정훈				

◆ 안수집사후보 <129명, 기호 순>

1 이시정	2 김진웅	3 정영봉	4 김봉양	5 이수경	6 안영락	7 장종희
8 조은봉	9 전선길	10 백 호	11 한기윤	12 김동옥	13 이영문	14 홍기문
15 계훈찬	16 계모세	17 김영철	18 강준남	19 강승구	20 신영삼	21 신대섭
22 문명근	23 정남출	24 신이철	25 최경식	26 김무남	27 김방초	28 최병주
29 조성현	30 김형철	31 정성건	32 김재원	33 김호섭	34 임우섭	35 문경학
36 한춘우	37 전재호	38 하창열	39 양인성	40 유형창	41 정해선	42 김무현
43 박기호	44 배근홍	45 정순엽	46 이응주	47 오영철	48 한덕호	49 이태성
50 정오도	51 윤석면	52 양병준	53 안성호	54 양성환	55 김석곤	56 오동희
57 김성덕	58 김태영	59 김택균	60 배동진	61 황희양	62 김성한	63 제해상
64 양성호	65 하석렬	66 홍동우	67 이승철	68 이영학	69 김병욱	70 이창선
71 오현택	72 고광단	73 안태운	74 김재을	75 한봉수	76 정하진	77 유병천
78 김원식	79 조중제	80 강동호	81 김민태	82 김홍범	83 김지호	84 차영균
85 권 철	86 김형태	87 이효윤	88 안동기	89 최성준	90 서광선	91 임종명
92 송재봉	93 주영빈	94 박진배	95 조위석	96 김성이	97 이향근	98 이광록
99 김용선	100 최상규	101 이중국	102 선병옥	103 이의성	104 이성수	105 이기열
106 김종길	107 김 훈	108 정봉섭	109 조병준	110 이용희	111 유승우	112 김인서
113 김재익	114 윤재기	115 강상진	116 김명선	117 이상길	118 김상돈	119 박상언
120 최충권	121 김광조	122 홍건식	123 김종태	124 오광모	125 옥응대	126 윤의성
127 손동기	128 최병일	129 조영래				

◆ 바로잡습니다.

본 만남지 1월호(420호) 교회소식 68쪽 – ‘방창권 장로님 별세’ 기사 중, 위로부터 13행 중간 ‘교회장’은 ‘가족장’으로, 16행 중간 ‘영락동산 18단지에 안장되셨으며’는 ‘영락동산에서 수목장으로 모셔졌으며’로, 62쪽 하단 ‘김선태 목사님의 새 책’ 제호 ‘땅을 잊고 하늘을 찾는 사람’은 ‘땅을 잊고 하늘을 찾은 사람’의 오기였기에 바로잡습니다.

김의환 장로, '대한민국 무예대상' 수상

김의환 장로(대학부 부장)가 지난 1월 16일(금) 서울 총무아트홀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된 '제4회 대한민국 무예대상' 시상식에서 '무예대상 학술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무예신문사가 주최하여 '대한민국무예대상 시상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서, 우리 교회 김의환 장로가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며, 인종과 무예 계파 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에게 주어지는 이 행사에서,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교수와 무도대학 유도학과 교수, 국제스포츠과학 연구원장, 아시아운동역학회장,

대한무도학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김장로는 학술분야에서 스포츠과학, 무도체육 및 유도경기력 향상에 관한 저(역)서를 27편이나 편저했으며, 217편의 연구업적과 많은 학술포럼을 통해 무예발전은 물론 현대 스포츠과학의 현장 적용으로 한국 무예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상을 받게 된 것이다. 상을 받은 김 장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예는 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신 동력이니 만큼 한국화, 국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사진은 상을 받고 포즈를 취한 김의환 장로(오른쪽)와 이강우 시상위원회 위원장〉

【취재 : 정은희】



'만남' 지 편집장에 설재훈 집사 제직부서 등에 '홍보담당' 도 두기로



홍보출판부는 신영삼 집사 후임으로 설재훈 집사(사진·홍보출판부 실행위원)를 만남지 편집장으로 임명했다. 다년간 홍보출판부에서 봉사해 온 설 집사는 현재 교통연구원 부원장을 겸하여 '월간교통' 편집을 맡고 있으며, 3월호 '만남' 지부터 담당하게 된다.

3년간의 편집장 임기를 마친 신영삼 집사는 전문위원으로 남아 계속 봉사한다. 한편 홍보출판부는 올부터 각 제직부서 및 자치단체에서 임명한 홍보담당으로 하여금 자부서의 소식과 행사 등을 제공받아 '만남' 지 소식란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교회소식' 을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 신입회원 가입 안내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교회 은퇴제직으로서 ‘은퇴제직상조회’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가입신청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가입대상 : 2008년 12월 31일로 은퇴하는 제직
2. 가입기간 : 200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3. 가입 접수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각종회비 수납 장소(상조회)
4. 가입절차 : 접수창구에 비치된 가입원서를 입수한 후, 본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게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상조회원 자격 및 회비납부와, 수혜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조회 회칙 등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교회는 영락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정년 은퇴교역자, 장로(원로, 은퇴, 협동),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한 지 6개월 이내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들로 구성한다.’ (2006.1. 시행, 2008.1.1시행) (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 * 가입비 10만원(기금 또는 준비금 조성과 기타 목적 사업을 위해, 신규가입 시에 한함)
 - * 연 회비 2만원 (회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회 연초에 한 함)
 - * 부조금 : 정회원 별세시마다 부의금 등 지급을 위해, 1만원(임원회의 의결로 부조금 납부 감면 시 예외). 다만 정년 은퇴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회원에 한하여 신규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 의무 부담(2008. 1. 1 시행)
6. 기타 : 의문사항은 상조회 접수창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까지).

* 전화 : 02) 2280-0238

2008년 12월 31일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백운경 장로

2009년도 신임 부목사 프로필

성명	생년월일/ 가족사항	학력	목회경력
유창원	66.6.13 사모, 자2	한양대 사범대학 영어교육(89) 장신대 신대원(96) Birmingham 대학교 대학원(08)	안양교회 부목사 (교구, 행정, 청년부, 전도) Birmingham 한인교회 담당목사
김성수	72.5.31 사모, 자2	연세대 철학과(96) 장신대 신대원(99)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M.A.(01)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박사 Th.D(재학중)	장석교회 부목사(청소년부 담당) 평광교회 부목사(교육부, 교구)
정연수	70.4.15 사모, 자3	중앙대 경영학(93) 장신대 신대원(00) 장신대 선교신학(Th.M.)	일산동안교회 전도사 (유치, 고등, 청년, 전임) 주안장로교회 부목사 (행정, 예배, 교구, 찬양)
최경영	70.9.5 사모	연세대 신학과(94) 장신대 신대원(00) 연세대 신학과 Th.M.(01)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대학원 성서학과 M.A. (06)”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07)	남대문교회 부목사(장년부, 교구) 고척교회 부목사(교구, 양육훈련)

2009년도 목회자 사역 분담(부목사)

정우식	예배위원회, 11교구(종로 성북), 음악부, 시온찬양대, 교회음악아카데미, 안수집사회
민철홍	목양부, 2교구(강동 송파), 권사회
정귀식	선교부, 자원봉사부, 4교구(중구), 3남선교 3여전도
이광육	목회행정, 14교구(서초), 북한선교센터
엄상일	교육부, 대학부, 교회교육원, 호산나찬양대
박재학	목양부(소그룹), 8교구(서대문 은평)
조철한	사회봉사부, 7교구(강서 구로 양천)
임장원	친교부, 1교구(강남), 노인대학
김상혁	목회행정(기획), 12교구(노원), 베들레헴찬양대
정재화	상담부, 13교구(강북 도봉), 임마누엘찬양대
김기남	상례부, 9교구(동대문 중랑), 장년부, 베다니찬양대
유상진	홍보출판부, 16교구(성남 분당)
김동호	새가족부, 5교구(용산), 갈릴리찬양대
장병희	아동부, 유년1부, 15교구(인천)
최정일	문화선교, 18교구(안양 수원), 1남선교 1여전도
채효민	IT미디어부, 17교구(고양 파주)
권오성	예배위원회(기도), 19교구(용인 화성)
유창원	예배위원회(젊은이), 청년부
김성수	고등부, 3교구(성동 광진)
정연수	선교부(전도), 10교구(마포 영등포), 4남선교 4여전도
최경영	사랑부, 6교구(관악 동작 금천), 갈보리찬양대, 금요직장기도회
Bill Majors	국제예배
김은섭	한경직기념사업회, 교회역사위원회
최정민	교육부(영·유아·유치부), 교회교육원, 학원선교
서정필	설악산수양관
변해성	기도원
이광순	협동목사

2009년도 목회자 사역 분담(전도사)

김명기	새가족부, 10교구(마포 영등포)
방명숙	예배위원회(기도), 12교구(노원)
함승수	중등부
조광민	노인대학, 5교구(용산)
홍성인	목양부, 1교구(강남)
김갑부	예배위원회, 15교구(인천)
이환희	대학부
안창진	IT미디어부, 9교구(동대문 중랑)
홍성욱	교육부, 11교구(종로 성북)
백홍영	목회행정, 3교구(성동 광진)
이승재	젊은이예배, 7교구(강서 구로 양천)
김도현	북한선교센터, 17교구(고양 파주)
김정진	목양부, 4교구(중구)
고요엘	초등1부, 2교구(강동 송파),
문영훈	선교부, 문화선교, 13교구(강북 도봉)
심규한	선교부, 14교구(서초)
이요셉	장년부, 8교구(서대문 은평)
류덕호	사회봉사부, 음악부(한마음찬양반), 19교구(용인 화성)
빈태국	고등부
안정환	선교부
윤은상	상담부, 18교구(안양 수원)
김현근	소년1부, 6교구(관악 동작 금천)
성준오	새가족부, 16교구(성남 분당)
* 정창화	교육부
* 김보람	영·유아·유치부
* 이찬일	사랑부
* 박광영	중등부

* 표는 준전임 전도사

영 락 사 회 복 지 재 단

영락사회복지재단 후원방법 안내 (나눔, 또 하나의 나눔)

1. 계좌이체, 카드결제 : 영락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www.ynswf.co.kr에서 가능
2.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통장 : 후원자의 통장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사랑나눔통장으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재단에 기부도 하고 신한은행의 다양한 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부보험 : 누구나 하나씩 가입하는 보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도 영락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온라인기부

국민은행 004-25-0010-701
 신한은행 140-000-756373
 하나은행 197-910006-14105
 우리은행 111-04-100886
 외환은행 026-13-34523-2
5. 지로번호 7615061(인터넷 지로, 은행에서 납부가능) .
6. CMS(자동이체) : 홈페이지 나눔카페에서 다운받아 팩스 02-2277-5855 송부
7. 직접기부 :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후원수납처(주일에 한함)

영락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공제제도가 확대되어 자녀, 아내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납입하셔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2265-7023, 2277-5131 김은주 간사

영락문화공간 2월 프로그램 안내

2/1 영화상영 : 미션 (The Mission)

1750년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두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 신앙과 사랑,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야만의 땅 라틴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산 크를로스 선교회의 가브리엘 신부는 천신만고 끝에 과라니족을 선교하는데 성공한다. 제39회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2/8 영화상영 : 쉰들러 리스트 (Schindler's List) / 상

독일 나치 치하에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켜 1천명 이상을 아우슈비츠 대학살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그린 영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은 매일 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크라코프에 집결시킨다. 기회주의자인 쉰들러는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유대인을 활용하기로 마음 먹는다.

2/15 영화상영 : 쉰들러 리스트 (Schindler's List) / 하

유대인 회계사 스텐을 통해 자신의 이기주의와 죄를 깨닫게 된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로 결심한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탈출시킬 계획을 잡고, 유대인 명단(쉰들러 리스트)을 작성한다. 그리고 마침내 1,100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낸다. 제 66회 아카데미 작품, 감독, 편집, 촬영, 음악, 각색상 등 수상.

2/22 영화상영 : 아름다운 비행 (Fly Away Home)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슬픔과, 좁혀지지 않는 아빠와의 거리 사이에서 방황하던 에이미는 어느 날 늘 주위에서 미처 부화하지 못한 거위 알을 발견한다.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16마리의 귀여운 새끼 거위를 탄생시킨 에이미는 거위들을 따뜻한 남쪽 서식지로 데리고 가기 위해 사람과 철새가 함께 하늘을 나는 모험을 감행한다.

● 예배·기도회·교회학교 안내

새벽 기도회

새벽 5:30 ~ 6:30

주 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찬양 예배
오전 7:00~8:15	9:30~10:45	11:30~12:45	오후 1:30~2:45	3:00~4:15	5:00~6:15

젊은이예배 오후 1:00~2:30

국제예배(IWE) 1부 오전 10:00~11:00 국제예배(IWE) 2부 오후 3:00~4:15

교회학교

영아부 1, 2, 3부	만0~2세 미만	오전 9:30~오후 2:30	영아부실
유아부 1, 2, 3, 4부	만2~4세 미만	오전 9:30~오후 2:30	유아부실, 50주년기념관
유치부 1, 2, 3, 4부	만4~6세 미만	오전 9:30~오후 2:30	유치부실, 50주년기념관
사랑부 1부 2부	발달장애우	오전 9:30~11:00 오전 11:30~오후 1:00	교육관 1층
유년·초등·소년부 1부 2부	초등학생	오전 9:30~11:00 오전 11:30~오후 1:00	50주년기념관, 교육관 4층
CebC(어린이영어성경부)	유·초·소년부 학생	오후 2:00~3:30	교육관 4층
중등부	중학생 1부 2부	오전 9:30~11:00 오전 11:30~오후 1:00	50주년기념관 4층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8:45~11:00	베다니홀
대학부	재학생 1부 2부	오전 11:15~오후 2:30 오후 2:00~4:30	50주년기념관 지하 2층 50주년기념관 604호
베드로반	대입 재도전 응시생	오전 8:45~10:30	소강당
청년부	만35세 이하 청년	오후 2:50~4:50	50주년기념관 지하 2층

1부 오전 10:30~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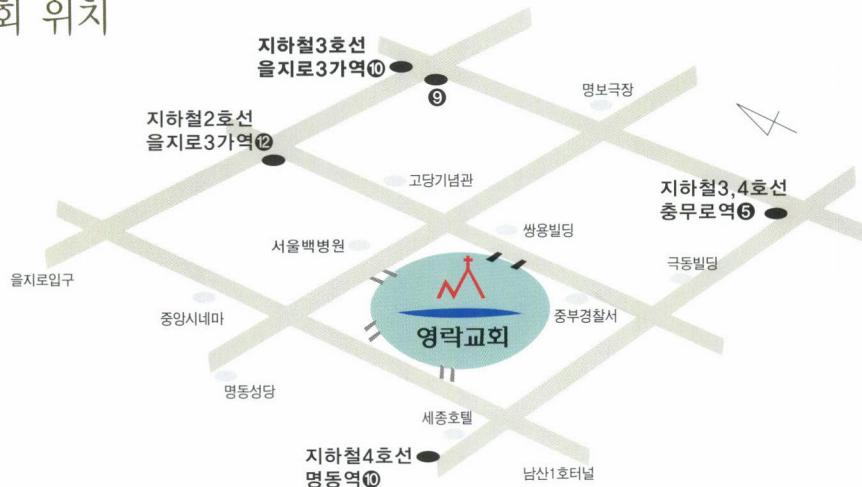
2부 오후 7:00~8:15

국제예배(IWE) 오후 8:00~9:15

오후 8:00~10:30

* 예배·기도회 주 장소는 본당, 새벽기도회는 베델, 젊은이예배는 베다니홀, 국제예배는 선교관임.

● 영락교회 위치



안내전화 : (02) 2280-0114(대)



달마시안의 행복

도자기(가로35cm×세로50cm)

최요셉

사랑부, 서대문교구, 신현중학교 1학년

영락화랑